

대한가정학회
제41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주제 : 산업사회와 가정

일시 : 1988년 10월 29일(토)

장소 :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대한가정학회

순 서

사회 : 문 숙 재 부회장

1. 개 회 10 : 00
2. 국민의례
3. 회장인사
4. 제 41 차 정기총회 10 : 20
 - 개 회
 - 전 회의록 낭독지영숙 서기
 - 1988년 사업 및 경과보고이현옥 총무
 - 1988년 결산 및 감사보고.....유춘희 재무·조창숙 감사
 - 198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상정...유춘희 재무
 - 임원개선
 - 각 지부 사업 보고.....각 지부장
 - 가정교육 연구회 경과보고
 - 아시아지역 국제가정학회 보고
 - 폐 회
- <휴 식> 11 : 00
5. 주 제 강 연
 - 「산업사회와 가정」 11 : 10
 - 산업사회와 의류학 : 김재숙(충남대)
 - 산업화에 의한 식생활 변화 소고 : 이종미(한남대)
 - <점 심> 12 : 30
 - 산업사회와 주생활 : 홍형욱(경희대) 14 : 00
 - 산업화와 가정경제 : 박명희(동국대)
 - 산업화와 가족생활 : 박혜인(계명대)
6. 제24대 신입회장 인사 15 : 45
7. 광고 및 폐회

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업사회와 의류학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김 재 속

I. 문제의 제기

의류학은 가정학의 한 영역으로, 개인의 가정과 사회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복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복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이며, 여러가지 다양한 요인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가정학의 다른 분야와 깊은 관련을 갖고면서 동시에 타 인접 학문 분야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 종합학문이다.

의류학의 역할과 학문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서 가정학의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의 결과로 가정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인하여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왔었다. (Horn 1982)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정의 좌표를 바로 하고 과학화 할 수 있는 가정학이란 학문이 미국에서 10회에 걸친 Lake Placid회의에 의하여 태어났다. 이 학문의 주된 목표는 가정생활의 과학적 운영에 의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가정학이 도입되어 여성교육기회를 확대시켰으며 양과 질에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였다. 의류학 분야는 섬유, 의복구성, 수예등 초기의 기본적 관심분야에서 복식사, 미학, 피복환경학, 피복인간공학, 의상사회심리학, 의류상품학, 의상예술등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연과학, 인문, 사회, 공학, 예술, 경영학등 여러 분야와 공동적인 관심을 나누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의류학이 가정학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보다는 전문적인 인접학문 분야와의 연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경향도 보인다. 가정학의 타 분야와는 물론이며, 의류학 내의 다른 분야에까지도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의류학의 팽창에 따른 응집력의 손실을 의미할 수 있고 타 분야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류학 전공 학생들에게도 의류학의 학문적 성격에 혼란을 주게된다.

2000년대는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와 로버트에 의한 자동화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혁명시기에 초래되었던 가정구조의 변화보다 결코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가정과 사회환경사이의 의복을 통한 상호작용의 형태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따라서 의류학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변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의류학 전공자로서, 우리의 고민은 통합된 체계의 결핍으로 잃었던 학문적 초점을 바로잡고, 다른 학문 분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독특한 학문적 특성을 갖고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II. Ecosystem에서의 의류학 연구

가정학의 대표적 개념들로서 Ecosystem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가정과 근접환경 사이에서 개인이 맞이하는 여러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Compton 1972) 의류학에서도 개인과 가정, 근접환경 사이의 의복을 통한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 연구 모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접근 방법

이 모형은 개인, 가족, 환경사이의 의복을 통한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여러측면에서 역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류학의 여러 분야와는 물론 가정학의 타 분야와도 공통적 관심을 나눌 수 있는 학문적 모형이다.

Horn(1984)은 예술, 역사, 문화, 심리, 경제, 경영 등 인접분야와의 연관과 가정학의 타분야와의 연결에 의한 의류학의 초점과 결핍을 Ecosystem에 의한 뚜렷한 연구방법으로 종합학문으로서의 변신 시키면 학문적 강점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류학의 Ecosystem의 연구의 한 예로 Pendersen(1984)은 의복의 보온성과, 집의 내부온도, 겨울의복 구매 등 3분야에서 개인의 쾌적감 측면의 연구를 제시하였다. 의복행동 연구에서도 개인, 가족, 또래집단, 근접사회의 피복문화적 환경 및 사회적 관습등 여러측면에서의 연구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Ecosystem에서의 의류학 연구는 특히 변형기의 의생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단일한 분야를 여러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cosystem에서의 의류학의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므로써 학문적 체계를 세울 수 있고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다.

2) 종합과학으로서의 의류학

의류학이 인접학문 분야와의 깊고 다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을 의류학의 특성의 결핍, 즉, 독특한 전공 분야로서의 정립이 안된 것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인간이 가정과 근접환경에서 의복을 통한 상호작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다양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우리의 노력으로 이점을 의류학의 특성으로 장점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의복을 통하여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빌릴 수 있는 모든 연구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점은 다른 종합학문에서도 보여지는 현상이다. 학문적 중심만 뚜렷하면, 타 분야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대처해도 좋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어느 분야와 어느 정도의 학문적 관계를 갖느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

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단 우리는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방법을 빌리는 것이 의복을 통한 문제의 해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다른 학문분야로 가는 원심력 만큼, 의류학 쪽으로의 구심력이 내재되어야만 할 것이다.

의복을 통한 문제를 사회심리적 이론의 자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이론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마켓팅 원리가 필요하면 그 원리도 빌릴 수 있겠지만, 이 연구방법을 빌리는 것은 의복을 통한 문제해결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복을 통한 문제의 형태가 변화되며, 이에 따라 우리의 관심도 변화하겠으나, 하나 변화지 않는 것은 의복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핵심인 것이다.

종합과학으로, 학문적 독자성보다 인접학문 분야와의 연결이 많다는 것을 의류학의 단점으로 생각하기보다 장점으로 승화시켜 타 분야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의류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JAX(1985)는 가정학의 어떠한 전공분야도 단독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보다는 각 분야의 적절한 통합과 조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강조하였는데, 의류학에서도 타 분야와의 상호협력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종합과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III. 산업사회의 의류학

Sproles(1984)는 동물의 양육양식처럼 현대사회에서도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였다. 종합과학으로서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소유하는 의류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현대사회에서의 경제적 구조를 이해하고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류학과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에서의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대학의 교육과정

대학교육을 학문적 중심을 유지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의복이 인간에 필요한,

근본적 요구이며,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만으로는 학생들의 경쟁력은 이루어 질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의생활을 통하여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통찰하고 해결방법을 찾으므로써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물로서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의류학과의 교육과정은 다른 종합학문분야와 같이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유연하게 대체하면서 의류학의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겠다.

앞으로의 자동화 시대의 대체와 의류학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재 강조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1) 현대 산업사회에서 의류제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
- 2) 산업사회에서 제기되는 의복의 안정성 문제
- 3) **Emergy**의 절약을 위한 효율적인 의복,
- 4) 장애인, 노인을 위한 기능적 의복
- 5) 자동화 시대에 인간이 대면하는 사회심리적 문제.
- 6) 기타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의복과 관련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좋은 학생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Locker, 1984)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학의 교육환경이 앞으로의 의류학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자동화 시대에의 대비

사회의 발전에 대학의 교육내용이 뒤떨어진다면 사회의 일꾼으로서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학생들에게 과거의 이루어진 일과 미래의 준비를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Caldwell, 1985). 노동력을 줄이고 원자재를 유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류제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한 의복디자인이 교육되어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해결 방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Cassil, 1985). Feimberg(1983)은 컴퓨터

의 사용이 증가되면 컴퓨터의 새로움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에서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에서의 인간적 특성까지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의생활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 판매 전략, 직물실험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경쟁력의 증가와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시대에 대처해야 하겠다.

3) 연구자의 양적 질적 증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가 많아야 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연구하는 회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학자는 연구결과로 산업체에 기여하고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산학협동체제는 종합학문인 의류학의 발달에 반드시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가정학의 여러분야에서 산업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의류학 분야의 연구 결과의 가치를 대중 및 산업체, 정책담당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전달과정도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과학이고 응용학문인 의류학은 사회에 이익을 줌으로서만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론적 체계의 정립, 연구방법의 개발을 통한 연구자의 자질을 향상하며 의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능동적 해결방법의 모색은 앞으로의 의류학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대학교의 연구자들 뿐만아니라 산업체와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IV. 의류학의 미래

앞으로의 우리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리라는 예측은 할 수 없으나, 2000년대의 사회는 지금과는 다르리라고 추측된다. 자동화되고 컴퓨터화된 사회구조에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리라고도 생각되며, 인간의 의복을 통한 근접환경과의 상호작용 형태도 변화하리라고 기대된다.

자동화된 직조방법과 수직이 공존할 수도 있겠고, 완전한 염색공법과 천연염료에 의한 염색방법이 같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류학은 주어진 환경에서, 개인이 근접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의복을 통한 문제가 제기되는 한 계속 존재하고 의복을 통한 문제가 제기되는 한 계속 존재하고 발전하리라고 기대된다. 앞으로의 의류학의 발전을 위해 결론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네가지를 요약한다.

1) Ecosystem에서 의류학의 독특한 연구 방법을 계속적으로 개발한다.

2) 가정이라는 중심적 제도에서 가정학의 다른 분야와 공동적 관심을 갖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Keiser, 1984)

3)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인접학문분야와의 협동을 통해 경쟁력을 증진시키되 관심의 중심은 항상 “의복”이라는 구조물에 머무른다.

4) 사회가 의류학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것을 과학적 연구결과로 해결하여 사회에 제시한다.

이와 같은 의류학도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 의류학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Caldwell, L.F. & Workman, J.E., “University Curriculum links with CAD/CAM Technology”, *J. of Home Ec.*, 1985 Fall, pp. 51-52
- 2) Cassill, N., & Leonas, K., “Preparing Textiles and Clothing for the Future”, *Clothing and Textiles. R.J.*, 1984, 2(2), pp. 19-21
- 3) Compton, N.H., & Hall, O.A., *Foundations of Home Economics Research*, Burgess Publishing Co. (MINNEAPOLIS, MINN), 1972, pp. 1-44
- 4) Feinberg, R.A., & Walton, K.M., “The Computers are coming, the computers are coming: A study of Human-Computr Social Interaction” *Home Ec. R.J.*, 1983(11-4), pp. 319-326
- 5) Horn, M.J., & Nickols, S.Y., “Interdisciplinary Research: Have we Lost Our Focus?” *Home Ec. R.J.*, 1982(11-1), pp. 9-14
- 6) Horn, M.J., “Clothing and Textiles: Future by Emergent Design” *Clothing and Textiles R.J.* 1984, 2(2), pp. 1-5
- 7) Jax, J.A., “Home Economics: A perspective for the Future” *J. of Home Ec.*, 1985 Summer, pp. 22-27
- 8) Keiser, M.B., “Critical needs for Home Economics Research” *Home Ec. R.J.*, 1984, 12(4), pp. 450-460
- 9) Locker, S. & Flynn, J.Z., “Investing in the Future: ACPTC Notheastern Subregion Take Stock” *Clothing and Textiles R.J.*, 1984 2(2) pp. 24-28
- 10) Pedersen, E.L., “The Ecological Alternative: An Option for the Future” *Clothing and Textiles R.J.*, 1984, 2(2), pp. 22-23
- 11) Sproles, G.B., “On Competitionand the Future”, *Clothing and Textile R.J.*, 1984, 2(2), pp. 29-32

산업화에 의한 식생활 변화 소고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이 종 미

I. 서 언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식생활은 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라는 생물학적 욕구와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가운데 영위된다. 즉 개인적 요소는 물론 사회적 배경, 국가적인 차원의 식품수급, 경제적 여건, 생활 방식등에 따라 식생활은 변천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식량문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산업혁명이후 근대화·공업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근대적 공장발달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과 가족형태, 경제, 소비, 유통구조의 변화 및 주거, 생활 의식등의 종합적인 대 변천이 초래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1962년에서 1986년까지의 5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에 힘입어 취업기회의 확대와 다양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의한 도시점근의 용이성, 도시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지역간의 인구분포 문제의 심화, 발전 불균형, 소득격차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나 국민소득증대와 소비생활의 양적·질적 향상에 의한 결과로 생활환경, 문화, 가치관, 의식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또한 국제화 시대의 결과로 외국의 식품과 조리법이 유입, 핵가족화와 여성취업률의 증가는 식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쳐 그 내용면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식생활 내용면의 변화와 이때 발생된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식품과 영양소의 섭취량 변화

식품의 섭취구조는 경제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인당 GNP가 \$500을 넘어선 1975년부터 소득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1965년 이래로 매년 보사부 주최로 실시한 「국민영양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1975~1985년도까지 지난 10년간의 식품 섭취실태를 살펴보면(표 1 참조) 식물성 식품중 곡류제품의 섭취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서류제품의 섭취량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과일류와 야채류의 섭취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동물성 식품의 총섭취량 약 2배의 증가를 보였는데 특히 육류, 난류의 섭취량이 2~3배의 증가율을, 유류는 무려 7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유지류는 동물성계나 식물성계 모두 2배이상의 섭취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식품 섭취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끼쳐(표 2 참조) 열량과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감소하고 단백질화 지방의 섭취량은 증가하였다. 그중 동물성 단백질은 약 3.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한국에는 영양문제의 심각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권장량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부의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하였듯이 영양섭취 실태도 지역간·계층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표 3 참조). 즉 농촌이나 도시 빈곤지역은 곡류식품을 비롯한 식물성 식품의 의존도가 높아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B₁ 등

*우리나라 1인당 GNP(in US dollar) : 1975(574\$), 1980(1589\$), 1985년(2,047\$)

〈표 1〉 식품군별 섭취량

(단위 : g)

| 년도 | 식품군별 섭취량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식품 | | | | | 식품성 식품 | | | | | | | | | | | | |
| | 곡 및 제 | 류 및 제 | 감자류 | 야채류 신선류 | 야채류 가공류 | 과실류 | 해조류 | 조미료· 주·음료 | 유지류 | 육류 | | 난류 | 신선류 | 어패류 | 유류 | 유지류 | 식품성 식품계 | 동물성 식품계 |
| 1975 | 449.3 | 31.3 | 32.7 | 157.8 | 85.45 | 34.1 | 2.4 | 15.9 | 3.7 | 24.0 | 8.8 | 55.2 | 11.7 | 9.3 | 0.1 | 812.9 | 109.1 | 922.0 |
| 1976 | 452.4 | 31.9 | 39.0 | 192.7 | 80.2 | 58.2 | 3.7 | 19.6 | 4.3 | 12.4 | 8.2 | 43.9 | 11.2 | 8.2 | 0.4 | 881.8 | 84.3 | 966.1 |
| 1977 | 486.8 | 48.2 | 31.9 | 159.0 | 125.4 | 46.9 | 3.0 | 17.5 | 7.3 | 17.7 | 7.9 | 40.7 | 14.3 | 12.4 | 1.0 | 925.8 | 94.0 | 1019.7 |
| 1978 | 380.0 | 29.9 | 19.6 | 145.9 | 85.8 | 75.7 | 2.9 | 22.4 | 4.8 | 25.2 | 14.5 | 48.2 | 7.0 | 17.7 | 0.1 | 767.0 | 112.7 | 879.7 |
| 1979 | 413.8 | 37.5 | 19.6 | 203.4 | 78.5 | 30.5 | 3.8 | 16.8 | 5.0 | 31.7 | 16.3 | 65.8 | 12.2 | 15.4 | 0.0 | 803.8 | 141.3 | 950.2 |
| 1980 | 449.8 | 55.4 | 23.9 | 142.2 | 131.2 | 41.9 | 2.3 | 26.4 | 5.1 | 19.4 | 11.8 | 68.3 | 9.9 | 15.9 | 0.0 | 878.2 | 125.3 | 1003.5 |
| 1981 | 433.8 | 57.9 | 22.4 | 117.1 | 118.9 | 39.9 | 4.5 | 25.2 | 5.5 | 22.4 | 10.8 | 67.9 | 11.0 | 15.5 | 0.1 | 827.0 | 127.7 | 954.7 |
| 1982 | 422.7 | 56.3 | 19.9 | 141.9 | 111.9 | 45.4 | 4.4 | 17.1 | 5.2 | 22.2 | 12.3 | 75.8 | 29.8 | 24.8 | 0.1 | 824.8 | 164.9 | 989.7 |
| 1983 | 415.3 | 71.3 | 25.9 | 136.3 | 117.0 | 88.6 | 3.3 | 24.3 | 4.9 | 25.5 | 15.6 | 67.1 | 28.6 | 22.8 | 0.4 | 886.9 | 160.0 | 1046.9 |
| 1984 | 400.6 | 67.9 | 31.5 | 125.0 | 103.2 | 82.6 | 3.9 | 23.5 | 6.4 | 32.7 | 17.0 | 63.7 | 27.6 | 31.0 | 0.1 | 844.6 | 172.0 | 1066.6 |
| 1985 | 363.01 | 86.5 | 33.9 | 124.6 | 116.5 | 82.2 | 3.5 | 21.0 | 7.1 | 45.3 | 25.3 | 58.9 | 27.1 | 60.6 | 0.2 | 838.2 | 217.3 | 1055.5 |

주 : (1) 도시 평균 1인 1인당 섭취량

(2) 자료 : 보건사회부, 국민영양정보보고서(1975~1985)

이 권장량에 미달해 영양상태가 불량한 반면 도시지역의 고소득계층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소비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전반적인 영양상태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로인해 성인병 발생률의 증가, 고혈압·동맥경화증 같은 뇌혈관계 질환의 사망률 증가라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표 4, 5 참조).

III. 식사 형태의 변화

산업화로 인한 교통·통신망의 발달로 생활권이 1일권으로 접어들면서, 지역간의 식품공급이 원활해지고 유통구조의 체계화와 식품시장의 다변화는 전 지역에서 모든 계층이 다양한 식품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Mass media를 통한 식품광고는 소비자가 새로운 형태의 식품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먹도록 유인하여 식품선택의 범위를 넓혀주었다. 또한 1876년 개항기 이후부터 외국문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전래된 외국의 식품은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수입개방의 물결을 타고 더욱 더 다양해져 식습관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농업기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 개량된 과일·육류·채소류 등의 품종을 선보였고 특수작물의 경작을 가능케 했으며 식용동물의 최적환경과 교배술의 발달은 질 좋은 어·육류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였다. 식품저장의 기술 발달은 식품을 계절과 관계없이 먹도록 하였고, 식품자판기의 출현은 식습관을 변형시켰다. 소득수준 향상의 결과인 조리환경의 변화도 우리의 식사형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1970년대 이후 자본집약적 산업의 출현으로 냉장고·냉동고 등의 식품 보관기구의 보급은 옛날과 달리 신선한 식품(fresh food)을 취하게 만들어 저장식품(말린나물, 건어물, 장아찌 등)의 이용률을 저하시켰으며 전기후라이팬, 전기밥솥, 믹서, microwave oven, gas oven 등의 편리한 조리기와 조리용 연료의 사용은 조리방법과 식품 선택에 혁신을 일으켜, 식습관의 변화를 유도했다.

해방후 냉동식품법 및 분말건조 식품법에 의해 등장하기 시작한 통조림·병조림의 대량생산은 우리식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합성조미료의 이용은 음식

〈표 2〉 영양소별 섭취량의 연차적 추이(전국 1인 1일당)

| | 1969 | 1974 | 1977 | 1980 | 1983 | 1985 | 변동지수 ^{85/84} ×100() |
|-------------------------|--------|--------|------|-------|-------|-------|-------------------------------|
| 열량(Kcal) | 2105.0 | 2054.0 | 2134 | 2052 | 2012 | 1935 | 101.79 |
| 단백질(g) | 65.6 | 68.0 | 71.0 | 67.2 | 69.6 | 74.5 | 107.50 |
| 지방(g) | 16.9 | 15.5 | 28.0 | 21.8 | 23.5 | 29.5 | 122.92 |
| 탄수화물(g) | 422.5 | 405.4 | 397 | 396.1 | 379.6 | 341.5 | 97.43 |
| 칼슘(mg) | 440.0 | 444.4 | 487 | 598 | 506 | 569 | 118.30 |
| 철(mg) | 24.8 | 14.1 | 14.2 | 13.5 | 15.1 | 15.6 | 112.23 |
| 비타민A(I, U) | 4076.0 | 5213.3 | 1427 | 1688 | 2052 | 1846 | 109.82 |
| 비타민B ₁ (mg) | 1.76 | 1.3 | 1.4 | 1.13 | 1.14 | 1.34 | 114.53 |
| 비타민B ₂ (mg) | 1.28 | 0.9 | 0.9 | 1.08 | 1.00 | 1.21 | 116.35 |
| 나이아신(mg) | 27.8 | 15.0 | 19.0 | 19.1 | 23.7 | 25.7 | 113.22 |
| 비타민C(mg) | 89.0 | 100.6 | 91 | 87.9 | 69.5 | 64.7 | 110.41 |
| 동물성단백질비(%) ^a | 11.59 | 17.94 | 24.3 | 28.7 | 33.5 | 41.7 | 110.32 |
| 곡류에너지비(%) ^b | 84.1 | 82.1 | 77.7 | 77.4 | 74.9 | 67.9 | 93.20 |

a. 동물성단백질비 = $\frac{\text{동물성단백질}}{\text{총단백질}} \times 100$

b. 곡류에너지비 = $\frac{\text{곡류에너지}}{\text{총에너지}} \times 100$

자료) 보건사회부(1969~1985) 국민영양조사보고

〈표 3〉 지역별 영양섭취실태추이

| | 전 국 | | 대 도시 | | 중소도시 | | 농 촌 | |
|------------------------|------|------|------|------|------|------|------|------|
| | 1978 | 1984 | 1978 | 1984 | 1978 | 1984 | 1978 | 1984 |
| 열량(Kcal) | 1833 | 1900 | 1632 | 1925 | 1852 | 1968 | 1923 | 1829 |
| 곡물구성비(%) | 78.0 | 72.9 | 71.2 | 65.9 | 76.2 | 75.6 | 81.8 | 77.0 |
| 단백질(g) | 59.5 | 69.3 | 56.1 | 76.7 | 62.4 | 70.9 | 59.8 | 63.6 |
| 동물성단백질비(%) | 28.7 | 37.8 | 36.2 | 44.0 | 33.0 | 37.9 | 81.8 | 77.0 |
| 칼슘(mg) | 412 | 480 | 413 | 572 | 439 | 466 | 398 | 415 |
| 철(g) | 10.3 | 13.9 | 9.4 | 15.8 | 10.7 | 14.4 | 10.5 | 12.0 |
| 비타민A(IU) | 2867 | 1681 | 2422 | 1775 | 2771 | 1445 | 3135 | 1776 |
| 비타민B ₁ (mg) | 1.2 | 1.17 | 1.1 | 1.28 | 1.26 | 1.13 | 1.2 | 1.11 |
| 비타민B ₂ (mg) | 0.8 | 1.04 | 0.7 | 1.17 | 0.8 | 0.99 | 1.8 | 1.97 |
| 나이아신(mg) | 16.1 | 22.7 | 15.0 | 22.7 | 16.7 | 22.5 | 16.4 | 18.7 |
| 비타민C(mg) | 68.3 | 58.6 | 60.9 | 54.6 | 68.1 | 56.1 | 72.0 | 63.8 |
| 지방(g) | 22.6 | 24.0 | 28.8 | 31.6 | 24.8 | 23.1 | 18.5 | 18.3 |
| 동물성지방비(%) | 32.3 | 33.8 | 40.3 | 39.2 | 35.5 | 31.6 | 23.2 | 27.3 |
| 총식물성식품섭취량(%) | 90.1 | 85.8 | 85.6 | 80.8 | 88.6 | 86.6 | 93.3 | 90.5 |

자료) 보건사회부(1978, 1984) 국민영양조사보고

〈표 4〉 전국 성인병 실태조사 (전국민 대상 추계)

| 성인병명 | 환자수 | 성인병명 | 환자수 |
|-------------------|----------|------------------------|---------|
| 악성신생물 | 211,572명 | 기관지확장증 | 9,037명 |
| 당뇨병 | 35,901 | 간경변 | 55,066 |
| 정신장애 | 330,052 | 만성신장염과 신부전·신경화 증 | 27,175 |
| 만성류마티스성 심질환 | 28,882 | | |
| 고혈압성 | 190,522 | 관절병증과 류 마티스 | 691,603 |
| 뇌혈관 | 45,764 | | |
| 結核 | 41,402 | | |
|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천식 | 309,820 | | |

자료) 문옥륜외, “전국성인병실태조사”, 「보건학 논
집」 33, p44~79, 1980

총 8,629,897명중 성인병발생율은 731,596명으로
8.5%으로 이는 人口 10만명당 남자 7,138
명, 여자 8,649명의 발병율이다.

본래의 고유한 향미보다 종합적이고 진한 맛에 익숙
해지도록 입맛의 변화를 유도했다. 그후 미·영여농
산물 도입에 의한 제분업의 발달과 1960년대 혼·분
식 장려라는 정부시책에 힘입어 밀가루를 재료로한
제면, 제과, 제빵 산업이 발달했으며, 그 결과 쌀밥
중심의 식생활이 빵식, 분식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쌀등의 재료로 만들던 떡, 엿등의 간식이 과자등으로
바뀌었으며 육가공품, 유제품, 커피, 청량음료등의
출현으로 기호 식품의 소비패턴을 서구화시켰다(표
6, 7 참조). 또한 1980년대부터 국민 경제가 점점 고
도 산업사회화의 구조형으로 이행되고 국민소득이
증대되자 “소득은 구매하는 식품패턴을 결정하는 요
인일 뿐 아니라 식사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요인”이
라고 한 Alan Berg의 말처럼 국민들은 식생활 개선,
식품 품질의 고급화 및 다양한 제품의 출현을 요구하
였고 이러한 소비자 요구와 경제 개방정책에 힘입어

〈표 5〉 분류에 의한 死亡構造變動樣相 : (1960~1980)

| 死亡原因 | 1961 ¹⁾ | 1965 ¹⁾ | 1970 ²⁾ | 1974 ²⁾ | 1980 ³⁾ |
|-------------------|--------------------|--------------------|--------------------|--------------------|--------------------|
| 感染性 寄生蟲性疾患 | 128 | 97 | 72 | 59 | 40 |
| 新生物 | 36 | 42 | 52 | 66 | 110 |
| 內分泌 營養 및 代謝와 免疫障礙 | 35 | 30 | 9 | 8 | 10 |
| 血液 및 造血器의 疾患 | 4 | 3 | 2 | 1 | 2 |
| 精神障礙 | 5 | 12 | — | — | 6 |
| 神經系 및 感覺器 疾患 | 119 | 107 | 8 | 5 | 14 |
| 循環器系 疾患 | 30 | 37 | 116 | 148 | 266 |
| 呼吸器系 疾患 | 204 | 158 | 84 | 56 | 49 |
| 消化器系 疾患 | 173 | 151 | 24 | 30 | 78 |
| 泌尿生殖器系 疾患 | 16 | 10 | 7 | 8 | 9 |
| 妊娠, 出産 및 産褥 合病症 | 4 | 3 | 3 | 2 | 1 |
| 皮 및 皮下組織의 疾患 | * | * | — | — | * |
| 筋骨格系 및 結合組織 疾患 | 4 | 4 | 4 | 3 | 4 |
| 先天性 異常 | * | — | — | — | 2 |
| 周産期에 관련된 일정한 疾患 | 1 | — | — | — | * |
| 症狀, 徵候 및 불명확한 疾患 | 224 | 318 | 572 | 547 | 321 |
| 損傷 및 中毒 | 17 | 28 | 46 | 67 | 88 |
| 計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事例數) | (241,539) | (129,438) | (9,609) | (11,262) | (143,348) |

註 : *은 0.5이하

資料 : 1)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限, 「韓國의 人口動態統計」, 人口統計資料, 第22號, 1965, pp. 307~308

2) 李東宇·金駟舜, “死亡力指標의 開發 및 測定”, 「韓國의 保健問題와 對策(II)cm, 韓國開發研究院, 1977, pp. 444~445

3) 1980年 전체 死亡申告資料 중 死因分流 可能部分의 死因分析 結果.

〈표 6〉 主要加工食品의 生産量推移(1975~82平均)

| 품 목 | 단위 | 1975 | 1980 | 1981 | 1982 | 82/75 배수 |
|---------|-----|-----------|-----------|-----------|-----------|-------------|
| 소시지 | M/T | 2,819 | 12,224 | 19,832 | 29,272 | 10.4 |
| 분유 | " | 12,137 | 33,189 | 27,175 | 30,225 | 2.5 |
| 아이스크림 | kl | 18,654 | 60,996 | 90,131 | 81,930 | 4.4 |
| 처리우유 | M/T | 120,802 | 333,757 | 395,787 | 450,652 | 3.7 |
| 유산균발효유 | " | 9,111 | 179,777 | 182,230 | 196,567 | 21.6 |
| 수산물통조림 | " | 9,700 | 8,960 | 13,508 | 13,945 | 1.4 |
| 대두유 | kl | 6,303 | 69,400 | 69,745 | 85,487 | 13.6 |
| 쇼팅 | M/T | 20,252 | 26,592 | 32,398 | 38,570 | 1.9 |
| 밀가루 | " | 4,446,828 | 1,471,626 | 1,438,789 | 1,444,217 | 1.3 |
| 식빵 | " | 57,526 | 145,704 | 142,916 | 158,197 | 2.8 |
| 건과자 | " | 35,273 | 106,873 | 99,730 | 125,960 | 3.6 |
| 라면 | " | 120,805 | 217,134 | 232,794 | 239,812 | 2.0 |
| 精糖 | " | 332,008 | 756,821 | 689,764 | 645,614 | 1.9 |
| 설탕과자 | " | 21,121 | 53,869 | 49,507 | 53,001 | 2.5 |
| 츄잉검 | " | 14,378 | 33,691 | 29,636 | 27,799 | 1.9 |
| 간장 | kl | 39,934 | 62,234 | 64,447 | 66,836 | 1.7 |
| 글루타민산소다 | M/T | 39,324 | 53,892 | 49,229 | 47,293 | 1.2 |
| 분유 | " | 37,998 | 86,590 | 85,444 | 112,348 | 3.0 |
| 식용포도당 | " | 14,453 | 27,102 | 28,437 | 30,271 | 2.1 |
| 물엿 | " | 24,543 | 70,175 | 68,787 | 75,471 | 3.1 |
| 커피 | kg | 1,463,923 | 4,765,561 | 4,765,561 | 5,650,843 | 3.9 |
| 분말인삼 | " | 745,452 | 209,875 | 198,667 | 230,837 | 0.3 |
| 주정 | kl | 114,134 | 130,626 | 147,623 | 160,164 | 1.4 |
| 소주 | " | 393,447 | 505,140 | 535,369 | 549,328 | 1.4 |
| 탁주 | " | 1,400,957 | 1,425,514 | 1,359,774 | 1,305,561 | 0.9 |
| 청주 | " | 18,049 | 25,795 | 18,269 | 15,347 | 0.9 |
| 맥주 | " | 177,275 | 579,023 | 599,202 | 626,811 | 3.5 |
| 사이다 | " | 36,679 | 173,620 | 185,235 | 208,547 | 5.7 |
| 콜라 | " | 38,001 | 186,021 | 201,962 | 227,786 | 6.0 |
| 쥬스 | " | 36,422 | 163,215 | 149,617 | 189,013 | 2.2 |

資料：經濟企劃院「産業生産年報」1982.

〈표 7〉 加工食品別 生産量成長率(1975~82)

| 成長率 | 品 目 |
|---------|-----------------------------|
| 500% 이상 | 소시지, 유산균발효유, 대두유, 콜라 |
| 300~499 | 아이스크림, 사이다 |
| 200~299 | 처리우유, 건과자, 전분, 물엿, 커피, 맥주 |
| 100~199 | 분유, 식빵, 라면, 설탕과자, 식용포도당, 쥬스 |

| 成長率 | 品 目 |
|-------|------------------------------|
| 50~99 | 쇼팅, 정당, 츄잉검, 간장 |
| 0~50 | 수산물 통조림, 밀가루, 글루타민소다, 주정, 소주 |
| 0% 이하 | 분말, 인삼, 탁주, 청주 |

(자료) 경제기획원「산업생산연보」1982

〈표 8〉 국내 Fast Food 업계현황

〈1985년 10월 현재〉

| 업종별 | 상표명 | 국내업체 | 기술도입처 | 기술도입내용 | |
|-----------------|---------------------------|-----------|-------------------------------|--|-----|
| Hamburger 업체 | Lotteria | (주)롯데리아 | 日本 Lotteria | 기술도입합자 | 49 |
| | Americana | (주)아메리카나 | | | 30 |
| | Burger King | (주)한 압 | (美)Buger King | 51 : 49 합작 Roy- alty 3%지급 | 6 |
| | Wendy's | (주)윈 코 | (美)Wendy's Inter- national | 70 : 30 합작 Roy- alty 3% | |
| | Daily Queen | (주)한양유통 | (美)Daily Queen | Royalty 4% 지급 | |
| | Family | (주)페밀리 | | | 70 |
| | Big Boy | (주)빅보이 | | | 83 |
| | Connelly | (주)커널리 | (美)Connelly | | 8 |
| | Burger Man | | | | 4 |
| | Lovely | 제 5 식품(주) | | | 24 |
| Dalas | 이신충 | | | 80 | |
| 후랜드천 | 천일식품(주) | | | 70 | |
| Gloria | 그로리아 | | | 3 | |
| | Indean | (주)인디안 | | | 65 |
| | Mederia | | | | 24 |
| | 탐스코리아 | | | | 1 |
| | Burger Jack | (주)LMJ | | | 7 |
| | 대관령 Hamburger | 삼양식품(주) | | | |
| Ameri King | 성진산업(주) | | | 5 | |
| Young Family | | | | 22 | |
| Chicken업체 | Kentucky Fried Chicken | 두산식품(주) | (美)K. F. C Heublein Inc | Royalty 45% Service Fee 점포당 10,000\$ | 69 |
| | Lim's Chicken | 림스상사(주) | | | 105 |
| Donuts업체 | Winchell's D | (주)부흥사 | (美)Winchell's D | Royalty 3% | 18 |
| | Mister D | 대건교역(주) | (주)Mister D | Royalty 3% | 13 |
| | Dunkin D | (주)金土日 | (美)Dunkin D | Royaity 3% | 12 |
| Pizza업체 | Shakey's | 골든벨상사(주) | (美)Shakey's Pizzaa | Royalty 3.5% License Fee 15,000\$ | 1 |
| | Pizza | 동진식품(주) | (美)Pizza Hot | Royalty 3% License Fee 30,000\$ | 2 |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이 확대되어 식품산업, 식품 서비스산업, 외식산업등의 식생활 혁신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표 8, 9 참조). 그 결과 가공식품과 즉석 편의식품, 외식의 증가라는 과거와는 다른 식생

활 패턴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여 피자, 햄버거, 라면, 코카콜라등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식성이 서구화되는 경향을 낳았다. 이러한 서구취향적 식품소비는 세대간에 식품에 대한 거리감과 식

〈표 9〉 서울家口의 月平均 外食비 지출동향

단위 : 원%

| 구분 연도별 | 식료품비 (A) | 외 식 비 | | | 한 식 | | 중 화 식 | | 양 식 | |
|-----------|-------------|--------|-------|-----|-------|-------|-------|------|-----|-------|
| | | 지출액(B) | 증가율 | B/A | 지출액 | 증가율 | 지출액 | 증가율 | 지출액 | 증가율 |
| 1975 | 28,960 | 623 | — | 2.2 | 369 | — | 179 | — | 18 | — |
| 1976 | 35,240 | 746 | 19.7 | 2.1 | 447 | 21.1 | 229 | 27.9 | 17 | △5.6 |
| 1975 | 28,960 | 623 | — | 2.2 | 369 | — | 179 | — | 18 | — |
| 1977 | 42,340 | 1,492 | 100.0 | 3.5 | 1,022 | 128.6 | 347 | 51.5 | 59 | 247.1 |
| 1978 | 54,590 | 2,092 | 40.2 | 3.8 | 1,411 | 38.1 | 469 | 35.2 | 80 | 35.6 |
| 1979 | 65,543 | 2,884 | 37.9 | 4.4 | 2,131 | 51.0 | 550 | 17.3 | 84 | 5.0 |
| 1980 | 79,677 | 3,491 | 21.0 | 4.4 | 2,755 | 29.3 | 536 | △2.5 | 109 | 29.8 |
| 1981 | 93,197 | 4,207 | 20.5 | 4.5 | 3,375 | 22.5 | 615 | 14.7 | 110 | 0.9 |
| 1982 | 106,938 | 6,243 | 48.4 | 5.8 | 3,203 | △2.5 | 676 | 9.9 | 199 | 80.9 |
| 1983 | 111,532 | 7,218 | 15.6 | 6.5 | 3,045 | △4.9 | 809 | 19.7 | 230 | 15.6 |
| 1984 | 119,282 | 8,125 | 12.6 | 6.8 | 3,254 | 6.9 | 789 | △2.5 | 338 | 47.0 |
| 1985 | 118,898 | 9,127 | 12.0 | 7.7 | 3,030 | △6.9 | 744 | △5.7 | 262 | △22.5 |
| 1986 | 126,658 | 11,579 | 26.9 | 9.1 | 3,950 | 30.4 | 784 | 5.4 | 305 | 16.4 |

〈자료〉 경제기획원(1975~86) 도시가계년보

품 사대주의 경향을 증가시켰고 가정의 식사형태 또한 한끼니를 우유, 빵 또는 cereal로 대체하는 질층식을 유발했다. 또한 식품산업의 발달은 간식의 종류를 다양화시켰고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높아져 새로운 영양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의 식생활은 식품재료 구입후 집안내에서 조리하는 형태로 영위되어왔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핵가족화의 추세, 주거형태의 변화, 가정부 등의 구독난등은 시간 절약과 편의성 위주라는 현대인의 의식구조와 부합하여 요리가 가정으로부터 밀려나 대량 조리점(예 : 전문반찬가게)의 출현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래되어 오던 고유한 음식이 사라져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전통음식이 점차 잊혀져가는 추세이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식품에 대한 가치관, 식품 소비패턴, 조리방법, 식생활 관리 및 영양섭취 관리태도에 대한 의식구조에도 변화를 야기시켰다. 즉 식품섭취는 생존과 허기의 만족이라는 단계를 지나 영양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식품섭취행위가 하나의 즐거움으로까지 느끼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일부 계층

에서는 그릇된 식사가치관과 영양지식의 부족으로 건강식을 강조한 나머지 영양식, 강장식 그리고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낳았고 지나치게 음식을 절제하거나 미식을 찾아 식생활을 혼돈스럽게 하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또한 가공식품, 즉석편의 식품의 이용은 포장재의 위생문제와 독성문제, 내용물의 영양소 함량과 식품 첨가물의 유무 및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IV. 결 언

인간의 식생활 형태는 지역, 민족, 시대를 막론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존→인식→선호→예술의 단계로 옮겨가면서 발전한다. 산업사회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식생활 관리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우리의 미래 식생활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영위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첫째 산업화로 인한 농·어촌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도시의 일부를 영세화시켰고 경제발전에서 제외

된 빈곤 지역의 영양 불량상태와 경제성장에 따른 일부 계층의 과잉영양은 양극화 현상을 표출시켰다. 따라서 지역, 계층간의 식습관 패턴의 확실한 파악과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각계 각층의 식생활 모형제시 등 국가정책면에서 국민영양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기능주의적 경향은 가공식품과 즉석편의식품의 이용, 외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사용된 식품의 성질, 영양, 유해물질의 유무, 안정성, 저장성등의 정보를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제공해주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연구행정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설립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식품구성물질함량표시(food leveling)법을 제정하여 조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셋째 전통음식에 대한 영양적 분석, 맛의 연구, 조리법의 표준화등 과학화 작업이 이루어져 국제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편의성 위주의 식생활 근대화라는 시대적요구는 외래 문화에 의한 새로운 식품의 적절한 수용과 조화, 전통음식의 수정과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가족간의 유대감이 식사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종래의 가정역활이 식생활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하여 흔들리면서 생활상의 리듬 변화 및 어린이들의 성격 변화등에 영향을 미쳐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의 식문화가 새로운 생활규범과 가치로 재구성되어 세대간에 연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손경희 : 현대 한국인의 식생활, -어제와 오늘-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 연구소.
2. 김숙희, 이기열 : 한국인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종합 연구, 연세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1974.
3. 정혜경 : 한국의 사회 · 경제적 변동에 따른 식생활 변천-조선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4. 이국환 : 2000년대를 향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5. 보건사회부 : 국민영양조사보고서, 1975~1985.
6. 농수축산신문, 1986.
7.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75~1986.
8. 경제기획원, 산업생산연보, 1982.
9. 경제기획원, 산업생산연보, 1982.
10. Kandel, R.F., Nutritional Anthropology Redgrave publishing Company, 1980.
11. Marion Bennion, Introductory foods. Mac Millan, 1985.
12. Lewis M, Baber, The Psychobiology of human food selection, Avi publishing Co, 1982.
13. Kristen W, MaNutt, David R, MaNutt, Nutrition and food choice, S.R.A Inc, 1978.
14. Alan Berg, Nutrition Factor,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3.

산업사회와 주생활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과

홍 형 목

우리나라는 현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폭발적 변화의 시대'라고 표현할 만큼 여러가지 가치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도비간, 계층간, 산업부문간의 격차는 초기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적인 다양한 특성이 혼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을 답사하여 보면, 농경사회의 유산인 전통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가부장적 사고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를 이용하고, TV, 냉장고, 전기밥솥을 사용하며, 그들의 자녀는 전문교육받고 도시의 아파트에서 후기 산업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살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주변에서는 농경사회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초기 산업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산업사회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가 후기 산업사회적 결실을 누리며 자라나는 자녀와 갈등을 느끼며 한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낙후된 지역, 계층, 부문과 첨단적 지역, 계층, 부문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사회와 주생활이라는 주제의 초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바 있다.

여기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이 개관과, 가족변화, 사회변화, 기술변화, 생태변화에 따른 주생활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떤 때는 총괄적으로 때로는 국지적인 면을 들어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I. 산업화 과정에 따른 주생활변화의 개관

19C말부터 전통하는 붕괴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외세의 지배, 해방, 6.25를 맞고 전쟁의 폐허속에서 4.19와 5.16의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60년대에 이

르기까지 농경사회의 특성이 아직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획적 경제정책으로 산업구조가 변모되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져 도시문제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체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주생활은 급격히 변모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공업화 추진과 수출증대에 힘입어 산업화는 가속화되었으나, 도시는 인구집중, 물가폭동, 주택난, 도시공해, 도시기반시설부족으로 주택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생산구조가 기계화 자동화되고, 여성교육기회 확대 및 산아제한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는 증가되고 생활합리화 의식이 높아졌다.

1970년 '국민의식조사'(중앙일보, 1975, 8.15)에서는 인간단절, 이웃관념약화를 문제로 들고 있고, 가정의 절실한 문제로 가족건강, 자녀교육, 가정의 안정, 생계유지를 들므로써 산업사회에 기능적인 핵가족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가족수도 도시의 가구당 평균인수가 70년도 4.8명이던것이 70년대 말에는 4.3인으로 감소되었다. 주택사정은 70년도 대도시 무주택가구가 52%에 달하고 총주택의 40%정도로써 주택난이 심각한 가운데 주택경기의 이상과 열에 의한 투기붐, 고층아파트 대량건설, 서구문화의 무비판적 선호에 따른 주생활의 혼란과 이에 따른 주공간의 변화가 급격히 초래되었다.

80년대는 경제성장의 안정기로서 지대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국민생활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중류계층의식이 높아지고 소비지출면에서 교육비의 부담이 커졌으며 문화, 오락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웃과의 단절,

이기주의, 자녀의 정서부재현상등이 지적되고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여가활용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1985). 난방연료는 아직 연탄의 비중이 절대적이거나, 취사연료는 연탄이 80년 78.6%, 83년 43.4%로 현저하게 감소된 반면, 유류와 가스의 사용이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다(경제기획원, 1985). 한국의 사회지표(경제기획원, 1987)는 단독주택 70.3%, 아파트 18.3%로 단독주택선호가 아직은 여전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파악에 의한 한국의 사회지표는 아직 산업사회 혹은 후기 산업사회로의 일반화가 무색한 점도 있으나 부문별로는 이미 Toffler가 지적한 산업화라는 제2의 물결, 즉-규격화, 분업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권화를 거치고, 이제는 산업문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이유, 즉-자연에 도전의 전회점, 재생불능 에너지 의존이 이미 불가능, 의무와 책임 및 역할분담의 재검토등이 현실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제 후기산업사회 혹은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의하는 대체 에너지요구, 새로운 테크놀로지, 탈 확일화, 컴퓨터의 이용, 주문생산제등의 확산을 부인 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II. 가족변화와 주생활

사회가 산업중심의 사회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농경사회의 노동력 집합체로서 이상적이었던 확대가족은 핵가족형태를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하게 되었다. 직업중심의 사회로 됨에 따라 계급구조가 계층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가족은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려고 하므로써 부모자녀관계가 변하여 가부장권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家堡 家舍 규모, 장식에 위계가 있고, 채(棟)의 위계, 각 채안의 공간에 위계가 있던 농경사회의 주거의 지위상징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는 부부의 동실취침, 부모자녀, 남녀장유간의 동일평면상의 공간배치를 가져왔고, 경제력에 맞는 주택에서 가족단란의 총아로 등장한 거실의 TV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던 시기로 표현될 수 있다. 근래에는 적어도 VIDEO와 케이블 TV의 등장, 2대이상의 TV를 가지고 있어서 channel

다툼없이 자기방에 들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보므로써 가족간의 소외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핵가족화와 가내 가족서열의 수평화는 심각한 노인부양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는 산업사회의 직업에 따른 이동성에 확대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데도 원인이 있으나, 화폐화 될수 있는 생산에만 가치를 두는 산업사회의 병폐로서 임금노동자의 자격을 상실한 노인의 가내지위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내 제일 좋은 방은 더 이상 노인의 차지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을 이룬 자녀의 분가와 주거이동에 따른 노인부양의 문제점은 후기 산업사회적 안정과 다양화 위에 노인문제의 가족부양적 차원을 사회적으로 노출시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핵가족 중심의 경직된 내부평면을 입주자요구에 따라 바뀌주는 융통형아파트, 3세대 가족을 위한 연접형 아파트, 아래위층으로 생활공간분리가 가능한 maisonette형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노후 주거단지, 노인전문아파트에 대한 탐색도 활발하여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다.

1957년 중암아파트, 1962년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되어 70년대에 붐을 이룬 집합주택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거주자가 일방적으로 적응하지 않을 수 없는 공급의 상황이었다. 산업사회의 확일화, 규격화 특성은 핵가족에 유리하고 더 이상 3세대 가족이 살기 불편한 주거평면을 상식화 하였다.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인 경우 큰방 1개에 작은방 2개, LDK형 공동생활 및 부엌공간, 욕실과 변소가 한 공간으로 처리된 화장실이라는 공간, 극소화된 발코니와 다용도실등으로 확일화, 규격화되고 이런 공간유형이 이상적이고 정형인듯이 보여졌다. 심지어는 실내마감 및 조명, 가구까지도 대량생산되어 똑같이 집이 수백, 수천가구씩 공급되어도 폭발적으로 분양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에 이르러 핵가족은 서서히 그 정통성이 약화되어가고 있다(단독가구 : 6.9%, 핵가족 : 67.0%, 1세대 가족 : 9.5%, 3세대 4세대 가족 : 14.9%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87). 독신자가 늘어감에 따라 독신문화에 걸맞는 독신자 전용아파트, 소규모 아파트가 늘어나고, 슈퍼마켓에는 냉동식품, 인스턴트식품, 완제품음식을 판매하며, 외식산업도 폭주하여 24시간영업하는 식당도 늘고 있어서, 부엌만이 온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공간이라는 정통성이 약화되고 있다. 부부가 자녀날기를 유보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으므로 해서 도심의 오피스텔이나 초고층아파트도 주거의 한 유형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수 감소, 생활양식 다양화, 편부모가족, 서로 다른도시에서 직업을 가지므로써 주말에만 만나므로 어느쪽도 full capacity의 주택으로 완성치 못하는 가족들이 늘어감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그리고 LDK형 공동생활공간이란 정형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가족유형의 변화뿐 아니라, 핵가족내 역할구조상 직업으로부터 소외되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산업사회의 전형적 주부가 교육수준 상승으로 인한 자기개발육구 및 생산으로부터 더이상 소외되지 않기 위해 직업을 가지므로써 자녀 양육기능의 사회화, 가족의 능력별 역할분담, 주거의 생산적 기능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제 부엌은 주부에게만 귀속된 공간이 아니라 온가족의 핵심활동공간으로 변모하고 주거공간은 휴식 및 심리적 안정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리라 본다.

친척관계가 소원해지므로 가족의 城으로서의 주거의 위치는 더욱 굳건해져서 외부에 대한 적절한 프라이버시조절을 요구하게 되고, 개인침실의 영역성 및 독립성은 더욱 요구되며, 가족단란 공간인 거실의 다양한 기능강화가 요구되는데 이는 주요중심생활의 아파트생활 문화와 더불어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부부가족은 친척과의 유대가 약하고 신거제이므로 부계모계가 거의 동등하게 중시되는 쌍계제가 정착될 것이고, 직업을 가진 주부일수록 친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 주거입지를 친정과 가까이 잡게 되며, 소비생활패턴이나 가정내 주생활문화가 친정 부모 처가와 동일시된 생활패턴을 지니게 된다.

III. 주거기능의 변화

과거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주거 및 주생활은 사회 규범의 축소판으로서 가사 가대제한은 사회신분에 따랐고 가내질서도 사회질서와 동일하였다. 가계계승에의 참여와 가내 거주위치는 밀접한 관련을 가졌으며 생산과 소비를 모두 감당하고 관리하는 '家'는 곧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고 주생활내용의 많은 부분이 사회화 되므로써 핵가족을 위해 간편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추게 되었다. 내객을 존중하고 지위를 상징하던 주거형태가 가족단란중심의 거실과 주부 및 자녀생활 편리를 위한 부엌 다용도실, 개인침실, 아동실의 개념이 부각된 형태로 변하고, 기계문명의 혜택을 극대화하여 주거내 설비 및 미세환경을 중시하고, 주거공간구성은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주요 기능으로 삼게되었다.

더이상 주택의 입지나 규모가 부의 상징은 될지언정 '家'의 상징으로써의 빛을 잃게 되었으며 주거기능이 가족에게 맞지 않을 때는 쉽게 이사를 결정하여 버리는 풍조를 낳게 되었다. 이는 물론 아파트의 대량공급에 힘입어 주거의 identity가 극소화됨에 따라 이사를 가더라도 비슷한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규격화, 획일화, 집중화, 거대화된 집합주택 대량보급은 평면화, 입식, 설비수준의 고급화를 통해 가사노동의 공간인 부엌, 다용도실 공간과 평준화시키고 격상시킨것도 사실이고, 공간의 획일화는 인간의 획일화, 평준화, 생활양식의 평준화를 낳으므로써 중산층의식 확보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집의 4주를 보고 잡던 동사택, 서사택의 좌향, 高樓를 피하는 풍수도참개념은 아파트 보급과 더불어 거의 사라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간 구성 및 주거기능 변화의 한 양상을 좀더 지적해 보면 1957년대 초부터 변소욕실을 하나의 실로 취급 주택내부안으로 들어가고 마루가 거실형태를 띠게 된다. 마당은 적극적 활용을 하던 것이 정원형태로 등장하고 60년대까지도 없던 지하실이 1960년대 후

반에 등장하여 수납, 보일러실, 창고, 차고등으로 만 쓰이다가 70년중반부터 거주기능이 복합되어 나타난다. 단층위주의 주거층은 70년대 중반부터 미니 2층 등의 구조로 발전되며 70년 후부터 부엌도 재래식에서 입식으로 되면서 식당공간이 추가되었다. 단독주택은 60년 후반까지도 기단의 형태를 따다가 70년 초반부터 테라스로 대체되었다. 1962년 건립된 대규모 집합단지인 마포아파트를 시발로 수평적 공간이 수직공간화되면서 마당의 개념은 아예 발코니로 축소되고, 부엌에 연결하여 다용도실이 등장하고 안방, 마루, 마당으로 연결되던 가족단락의 기능이 거실이라는 공간으로 통합되게 되므로써 거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많은 가사작업기능이 사회화되고, 아파트생활 입식생활로 인한 침구류 간소화,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평적 수납이 수직적 수납으로 바뀌어 공간활용이 높아진 탓도 있겠으나 아파트 보급은 수평적으로 퍼져 있던 공간을 기능에 따라 극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장독대를 아예 없애거나 극소화, 빨래장소도 축소, 부엌에도 핵가족 식사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설비와 수납공간이외의 여분의 기능은 축소하는 등 주택의 량적 보급을 중시하여 개별성 다양성은 필수록 제거하고 표준적 주거기능을 정착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후기산업사회에 이르러 양적보급이 질적보급에의 요구로 다변화 되면서 집합주택의 주거기능의 재평가 시점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가족구성·생활양식·지역성을 고려한 주택에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토지부족, 인구증가에 부응하려면 주택건축의 경제성, 대량공급의 요구충족이란 면에서 집합주택요구는 변함없으나 주거단지의 커뮤니티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한 주거단지내의 주거유형의 다변화, 전통문화와 지역성을 고려한 내부구성(예를 들면, 발코니를 네모난 마당형태로 하고 전면 발코니로부터 내부로 출입하는 유형, 이는 대문이 마당과 연결된 전통주택 개념과도 부합한다.), 주거공간 내부간살이벽의 거주자 요구에 따른 변경, 화장실 공간의 재검토 및 욕실공간의 휴식공간화, 개인침실보다 LDK를 남향으로 배치하여 공동생활공간의 활용도와 쾌적성을 늘린 주

거평면요구등이 수용될 징조가 보이고 있다.

또 근래에는 가구형식 및 소재의 다양화, 디자인의 다양화등이 공간기능의 다양화 요구에 뒤따르고 있으며 디자인 수준향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각종 반제품을 이용해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DIY코너가 백화점마다 성황을 이루는 것도 이러한 요구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이다.

IV. 사회변화와 주생활

사회변화에 따른 주생활의 변화는 단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이에만 기인 한다기보다는, 농경사회에 잘 기능했던 유교적 문화의 근간을 이루던 신분제와 강력한 가부장권, 장자유대 불균등상속, 三綱五倫과 孝悌忠信, 禮에 입각한 가내의 질서가 쇠퇴하고 조선말 실학사상의 대두로 인한 인간적, 실용적 차원으로의 변화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를 거치고 해방과 전쟁을 치르는 격변기를 맞이하면서 계급이 계층화해가고, 신 문물의 도입을 수용한 계층과 소외되었던 계층, 산업화에 따른 상공업이 우대되는 사회에서 부를 축적했던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사이에 나타난 주거문화 내지 주생활수준의 차이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들어 주택이 공산제품으로 생산되고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주거는 화폐경제의 향방에 따라 지어지고 사업의 수익성과 대량요구때문에 대량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주거의 경제적 가치, 편리성, 가족중심주의가 추구되고 주거규범의 다변화와 획일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주거수준이 극과 극을 달려서 공공부문 주택건설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국민주택규모 건설이 부진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주택보급율(85년 현재)이 71.7%이고 주택소유율이 전국 53.4%인데, 지난 몇년간 대도시지역 주택가 상승율은 연간 50-150%였으며, 1970-80년 기간에 40평이상 주택건설량이 379%증가한데 반해, 10-20평 주택건설은 21%증가에 그치는등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규모 분포의 왜곡화는 가중되고 있다. 또한, 우리주변에는 가주원수대비 1인 1실을 차지하고 거실, 가족실, 식당, 욕실, 서재등을 갖추고, 고

도의 설비수준과 여가시설까지 갖춘 주거 욕구수준의 상위단계를 이미 달성한 가족이 있고, 여가시설인 콘도미니엄이 전국명승지에 속속 들어 서고 있다. 또, 한편에는 생활양식상 임차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모자라 아직 내집이 없어 강제이동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동상수도, 공동변소를 사용하고, 충분치 못한 설비, 시설수준에서 온가족이 단칸 방에 의지하고 있는 가족도 많다.

그런가하면, 산업화는 공장도시와 대도시로 노동인구를 계속 유인하므로 도시는 질량적으로 분자적으로도 과밀주거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농촌은 폐가 즉 空家가 속출하고 기존 거주인구계층도 노령자가 대부분으로서 주거개건없이 불편한 상황에서 산업화가 가져다 준 TV, 전화, 냉장고, 전기밥솥 등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다른 부문의 변화나 발전보다 주거정책은 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계층과 지역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획일적인 재개발과 아파트 보급만이 능사가 아니라 각 계층에게 맞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며, 이미 형성된 계층간문화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서서히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의 영세민은 교육율이 높으며 삶의 의욕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반응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기술축적이 되도록 '자조주택'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의 삶의 의욕을 고려하여 입지상 지나친 계층간 괴리보다는 어느정도 population mix를 실시하여 상향적 여과효과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 시설수준 관리성이 좋아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주택문제해결에 기능적이므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하되 적정규모추구, 인구성격 및 에너지 양화를 추구해야 하고, 사회변화중 주요축면인 방어진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주거지역에서 빈발하는 범죄 가능성 배제 요구는 단독주택지역의 단지화, 집합주택단지에서도 단지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외부공간(현관주변, 동별외부공간, 단지외부공간)을 공공영

역으로 방치하지 않고, 집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외부공간의 2차적 영역화를 위한 질적 디자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V. 기술발전과 주생활

1920-3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Bauhaus운동은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되어 기능주의, 국제주의라는 사조를 낳았고, 이러한 것은 세계적인 파급을 일으켜 고층건물에도 유려한 Box like한 디자인, 가구, 생활용품을 파급시켰다.

또한 고층축조기술의 발전으로 1960년대이후 아파트라는 집합주택의 양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조립식 panel, 각종부품의 표준화를 통한 대량생산, 화장실 같은 단위 room의 공장생산도 가능해졌으며, 각종 구조재, 단열재, 창호재, 지붕재, 도장재등의 발전은 주생활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산업화의 덕택에 이룬 기술발전에 근거를 두었고,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대량공급요구가 있어서 더 가속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주택의 대량생산에 급급해서 주어진 평면에 모든 설비를 부착해 주어도 분양하자마자 날개돋친듯 팔리던 양적수준에서 벗어나(주거욕구의 4단계)이제는 새집을 입주하기 전에 월고 가족의 요구에 맞게 뜯어고치는 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이제는 세라믹등 신소재를 활용하여 거의 완벽하게 단열된 주택에서 컴퓨터의 자동제어기능을 도입한 각종 편의 설비가 있는 실내환경속에서 사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동식에서 벽식으로 내부구조가 바뀌고 벽, 바닥 panel을 공장생산화하게 되어 오히려 가변성이 적어진 최근 집합주택은 사전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간구조의 변화가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 외관의 다양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택사항을 늘리고, 내부공간 변경이 가능한 설계, 지역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주거동내의 중간층 및 옥상을 open space로 활용, circulation space의 계단참 및 외부공간을 2차적영역으로 활용, 주거동 인입공간의 활용, 1층 주거를 확장하므로써 identity를 증

하고 인간적인 접근을 하는 등의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른 것이다.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당시, 서울은 이미 단독주택수(697, 051호)에 육박하는 집합주택(453, 628호)이 있었는데, 그 중 80%가 강남, 강동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도 상계, 목동지구에 엄청난 집합주거가 건설되었는데 기술수준만큼 디자인 수준에 현격한 발전은 없는 듯이 보인다.

참고로 1952년에 건립된 불란서의 유명한 건축가 '르 코르부지에'가 지은 '마르세이유'의 Unite d' Habitation이라는 단 1동의 아파트가 산업사회의 비인간적 콘크리트 도시에 어떻게 공장생산된 slab를 이용하여 유토피아적으로 인간적 공간을 창조하였는가 예로 들어보자. 337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15층 건물의 아파트, 23개종류의 각기 다른 평면구성을 하므로써 획일화, 규격화에 대해 도전하고, 아파트 전면은 빨강, 초록, 노랑, 파랑, 흰색의 하모니, 중간층에는 상점과 찾아오는 손님용 호텔, 유치원, 탁아소, 체육관이 있고, 옥상에 수영장, 언덕, 결상이 있어서 37년 동안이나 거주자가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고 한다. Blake는 open plan환상으로 privacy의 부재라는 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가족생활주기가 바뀜에 따라 변화는 주거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기술수준과 거주자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디자인 수준이 따르기만 하면 획일화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술수준의 축적은 복토주택, 태양열 주택등 미래지향적 주거에 대한 탐색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VI. 생태변화와 주생활

산업화 이후 도시의 인구집중은 각종 공해문제로 시달리게 했다. 생활환경의 오염은 도시문제와 환경보호운동에 눈을 뜨게 했으나 공장과 주택지의 분리는 zoning의 환상을 믿게하여 뉴타운, 베드타운등의 건설로 직주간 거리증가로 인한 또 다른 공해원인 교통 문제를 가중시켰다. 또 석탄, 가스, 석유등의 기

존 에너지 고갈을 초래하므로써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해졌다. 그리고 도시건물의 노령화로 인한 새로운 생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0년전에 건축된 주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26.1% 50.8%, 60-69년이 18.2%, 70-75년이 19.8%가 되므로써 20년이상된 낡고 노후된 주택의 비율이 많다(이는 재개발을 팔수적으로 요청하게 되는바 단독주택이든 집합주택 이든 질적생활을 위한 community시설중심의 사회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또한 도시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현상이다. 경제가 팽창하는 곳은 지나친 고밀도로 성장하고, 또한 Filtering이론의 과잉확신은 도시 sprawl현상을 낳게하여, 도지는 감소하고 택지는 증가하며 위성도시까지 그대로 도시가 확산되고 마는 거대 도시화로 치달게 되었다. 일부 교외한 현상은 교외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른 인구유인때문에도 land sprawl현상을 낳아 경작지를 침식하고 교통문제를 가중 시키므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 한 해결 방법으로 공기오염의 자경화 기능을 촉진하고 사람들도 biorhythm에 맞추어 직업에 종사되도록 하는 flexitime제도를 이미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의 시도가 멀지 않으리라 본다.

또 기능과 규범이 변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주택은 한번 건립되면 최소 50년은 버티므로, 생활기능이 변화하는데도 구조는 그대로 라서 문제가 야기되고 구도로나 구도시 스케일이 자동차문화에 맞지 않아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 외곽도로의 조직화, 유통시설의 외곽 배치등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주거내 과밀은 도피, 반사, 반사회적, 공격적 행동을 유발한다든가 지나친 저밀도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족끼리의 갈등이 있을때 소원관계의 해소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도시도, 주거 단지도, 주거공간도 적정규모가 좋다는 점을 인식하여 균형과 향상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각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물질 제한사용이 생활화 되어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생정책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VII. 결 어

이상에서 지적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화되면서 나타난 여러가지 장점과 문제점을 일반화시키는데는 다소 난점이 있다. 지역간, 계층간, 부문간 격차가 있어서 아직 초기 산업사회에 속하는 그룹도 있고 이미 탈산업사회화 및 미래 정보사회의 진입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50~60대가 경험했던 시대와 30-40대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는 10대가 장년이 되어 살아가갈 미래 사회와는 많이 다르다는 시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1) dual career부부가 늘어나면서 산업화사회에 기능적이었던 형태상 핵가족의 역할구조는 변화될 것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게 평면은 다양화되고, 가내생산을 최소화하면서 가내역할분담이 수월하도록 최대한의 시설, 설비수준이 갖추어질 것이다. 특히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노인주거단지, 노인주거동, 연접형 주거유형도 보편화될 것이다.

2) 산업사회에 보편적이었던 직주분리에 알맞는 주거입지 및 주거공간 구성은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화되며 주거기능이 변화할 것이다. 가족내 사실 및 공동생활공간의 분리가 더 적극적이 되고 환경심리적욕구, 주거공간의 휴식, 재생산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다.

3) 사회변화는 富에 따른 계층간 주생활 수준이나 양식을 크게 다변화시키므로써 다중적으로 주택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층계급을 위한 자조주택, 중상층계급을 위해서는 규모, 기능, 재료, 설비, 시설면에서 선택의 다양화, 그리고 방어적 공간으로서의 외부공간 디자인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4) 기술발전예에 따라 대량공급형 아파트의 양적공급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이제는 질적 측면에서 설비, 재료의 첨단화, 고급화, 건축방식의 기술축적이 뒷받

침된 다양한 형태의 고층, 초고층 집합주택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다양한 공간요구, 규모요구, 고도의 설비수준, 환경수준요구, 외관의 identity요구, 기존주택의 재개발시 디자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5) 생태변화에 있어서 공해, 도시의 비정상적 팽창, 교통난, 자동차를 이용한 scale로의 변화가 산업화의 유산이라면 이제는 도시의 자정작용을 원용하여 바람직한 주거단지 배치와 다양한 생활양식을 지원하고, rush hour를 없애는 flexitime제로 전환하며, 생태변화에 따른 가정내의 공간 기능 적응 및 생활태도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년 入口 및 住宅 센서스 확정결과 보고. 1987. 11
- 김중인, 오늘의 주택-주택문제, 주택 45호, 대한주택공사 1984. p 36-45
- 박태환, 노인 집합주거의 계획과 설계,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5호. 1983. p 11-12, p 55-58
- 안경환, 주거환경설계에서의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권 11호, 1984. p 5-6, p 44-49
- 양재홍, 노인주거의 적정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권 109호 1982. p 11-12 42-49
- 이시웅, 복도주택의 에너지보존에 관한 연구. 건축 28권 116호 1984. p 1-2, p 54-61
- 임만택, 임영애, 주택문제의 전망에 대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권 6호. 1987. 12, p 89-101
- 張明洙, 都市와 建築의 批判的 序說, 주택, 44호 1983. 대한주택공사 p 124-130
- 鄭仁桓, 過密住居 生活實態, 저렴주택개발 국제 심포지움. 대한건축학회 1987. 9. p 3-5
- 지순, 윤복자, 노후생활주택단지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권 1호, 1986, p 95-113
- 집합주택과 주거양식, 월간 플러스, 8807,

1988. 7

피터 블레이크 著, 윤일주 譯, 近代建築은 왜 失敗하였는가? 설을 : 技文堂, 1985

하재명, 지방도시의 주거계획, 주택 45호 1984, 46-57

洪斗承, 金美希, 都市中産層의 生活樣式—住居生活を 중심으로—, 省谷學術文化叢刊, 1988

Altman, I. and Chemers, M., Culture and Environment, Monterey, Cal: Brook/Cole Publishi

Co. 1980

Doixadis, C., Ekistics, London: Hutchison & Co, 1968

Fletcher, B., A History of Architecture, 8th ed. N. Y: Chales Scribners Sons, 1975

Hitchcock, H.R. and Johnson, Philip, The International Style, N.Y: W.W. Norton & Corton & Company 1966

산업화와 가정경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박 명 회

I. 서 론

산업화는 우리의 경제생활을 생산과 소비라는 양극으로 갈라놓았다.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생산은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이고 일부의 잉여물자만이 교환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반면에 산업화는 대부분의 생산품(대량의 식량과 일용품 혹은 서비스) 등이 거의 매대나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제공되어 생산자 자신과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위해서만 생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즉 산업화는 일체였던 생산과 소비를 분열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갈라놓았다.

자가소비에서 교역으로 생산의 목적이 변한 사회에서는 교역을 할 기구가 있어야만 했으나 시장의 존재는 불가결했으며 이러한 시장의 발달은 노동의 세분화를 더욱 추진하여 생산성의 상승을 가져오게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킨 산업화는 노동을 두 가지로 나누는 작용을 했으며 이는 가정생활 및 남여의 역할과 개인의 생활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다(A. Toffler, 유재천역, 1981).

산업화 사회에 있어서 가정의 기능변화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급속한 기술적 진보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기능변화는 과거의 경제적 자급자족 단위에서 벗어나 생산요소제공 기능과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소비하는 기능의 양분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 사회에 있어서의

가정경제의 측면을 위의 두가지 측면 즉 생산요소제공의 측면과 소비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생산요소 제공분야의 특징

생산의 요소는 전통적으로 토지, 자본, 노동이 있으나 산업사회의 가정에서 주로 제공되는 요소는 노동력이다. 가정에 있어서 노동력 제공은 산업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기술진보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사회에 적합한 노동력의 제공은 생산성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한다.

한 나라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는 그 나라의 인구통계적 요소들과 경제수준 및 기술 수준을 반영한다. 또한 기술수준의 변화는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1)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산업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농업, 어업 등의 1차산업에서 광고업 등의 2차산업으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등의 3차산업으로 집중되며 고용구조도 이에 따라 고도화 또는 선진화로 이행된다. 이러한 변화발전은 점차 더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요구하게 된다. 가계에서는 이러한 고용시장의 속성에 맞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 소득에 관해서는 Becker(1966)와 Mincer(1970)등의 인간자본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자본이란(Human capital theory) 인간에 체화되어 있는 지식 및 기술등을 의미한다. 지식 및 기술등과 같은 인간의 능력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형식,

비형식 교육을 통하여 형성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훈련, 경험 및 노동유통을 통하여 획득되고 개발된다는 것이 인간자본론의 중심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경비도 모두 투자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인간자본론에 의하면 교육 및 직장에서의 현직훈련 등에서 투자증대를 통하여 인간 자본을 형성, 축적시키는 것은 개인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공공정책의 수단으로도 유용하다는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예로 개인소득을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구분 한다면 노동소득이 재산소득보다는 훨씬 공평한 분배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이 소득은 인간 자본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총 자본에서 인간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총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자본의 형성축적을 위하여 투자를 재고하는 것은 개인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85).

교육은 노동력을 증가함이 없이 노동자의 질을 향상시켜 그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되며 경제성장의 기본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가발전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얻게되는 투자의 산출효과는 첫째, 개인이 직업에서 얻게되는 소득의 향상을 들 수 있으며 둘째는 직업의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즉, 개인이 한단계의 교육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그 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소득도 그만큼 많아지며 직업선택의 기회 및 질적수준도 높아지고 승진의 기회도 넓어지는등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배중근, 1976).

어떠한 형태의 투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가계에 있어서도 투자의 수익률을 논의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물론 가정에 있어서 교육에의 투자가 교육비이외의 유형, 무형의 투입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Elmer Robles Ortiz, 1988) 또, 그 산출결과가 곧 개인소득의 향상과 직업의 안정이라는 것으로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일단 경제적 가치로만 계산된 교육투자의 수익률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1〉 1985년도 教育投資收益率

(단위 : %)

| 학교급별 | 社會的 收益率 | | 個人的 收益率 | |
|------|---------|------|---------|------|
| | 男 | 女 | 男 | 女 |
| 중 학교 | 11.2 | 0.9 | 12.9 | 2.2 |
| 고등학교 | 7.6 | 9.0 | 7.6 | 9.6 |
| 전문대학 | 13.3 | 15.0 | 14.2 | 16.3 |
| 대 학 | 14.6 | 11.1 | 14.8 | 11.7 |

註 : 본 연구와 함께 출간되는 『교육 투자 규모와 수익률』(1985)에서 산출된 결과임.

위 표에서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교육투자 수익률은 사회적 수익률 보다 개인적 수익률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투자의 효과는 사회적 기여보다는 개인소득의 기여가 약간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중 개별 가계부담 비중을 살펴 보면 1985년도 1인당 직접교육비중 사부담비중은 국민학교 51.3%, 중학교 80.1%, 고등학교 88.2%, 전문대학 84.4%, 그리고 대학의 82.2%로 대부분 가계부담으로 되어 있다(교육개발원, 1985).

교육투자의 사회적 효과도 일반가계부담에 의한 교육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와 같은 교육투자 수익율은 실물자본투자율과 비교해보면 1985년의 실물자본투자 수익율 12~15%와 추정된 교육투자 수익율의 비교에서 고졸이하의 경우 투자 수익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박세일, 1982).

가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사회의 산업화가 이루어 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일수록 또 저소득층일수록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과 압박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 사회에서의 가계는 노동력수준향상을 통한 개별가계의 소득향상을 위해 교육비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고졸 이하의 낮은 투자수익율 때문에 더 높은 단계의 교육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농촌 및 저소득 계층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가정경제의 균형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현상은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더 높은 단계의 교육투자를 할 수 없는 가계에게는 가정경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빈곤

〈表 2〉 所得水準別 可處分所得 對比 學生 1 人當 私負擔 教育費 比率(1984)

| 所得水準 (萬圓) | 稅 率 (%) | 所得稅 (萬圓) | 可處分所得 (萬圓) | 可處分所得對比 學生 1 人當 私負擔 教育費 比率(%) | | | | |
|--------------|------------|-------------|---------------|-------------------------------|------|------|-------|-------|
| | | | |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 학 |
| 120 | 6 | 7.2 | 112.8 | 28.7 | 45.3 | 67.9 | 121.1 | 148.3 |
| 180 | 7 | 12.6 | 167.4 | 19.3 | 30.5 | 45.8 | 81.6 | 99.9 |
| 240 | 8 | 19.2 | 220.8 | 14.7 | 23.1 | 34.7 | 61.9 | 75.8 |
| 300 | 10 | 30.0 | 270.0 | 12.0 | 18.9 | 28.7 | 50.6 | 62.0 |
| 390 | 12 | 46.8 | 343.2 | 9.4 | 14.9 | 22.3 | 39.8 | 48.8 |
| 480 | 15 | 72.0 | 408.0 | 7.9 | 12.5 | 18.8 | 33.5 | 41.0 |
| 600 | 18 | 108.0 | 492.0 | 6.6 | 10.4 | 15.6 | 27.8 | 34.0 |
| 840 | 22 | 184.8 | 655.2 | 4.9 | 7.8 | 11.7 | 20.9 | 25.5 |
| 1,140 | 26 | 296.4 | 843.6 | 3.8 | 6.1 | 9.1 | 16.2 | 19.8 |
| 1,500 | 30 | 450.0 | 1,050.0 | 3.1 | 4.9 | 7.3 | 13.0 | 15.9 |
| 1,900 | 34 | 646.0 | 1,254.0 | 2.6 | 4.1 | 6.1 | 10.9 | 13.3 |
| 2,400 | 38 | 912.0 | 1,488.0 | 2.2 | 3.4 | 5.1 | 9.2 | 11.2 |
| 3,000 | 42 | 1,260.0 | 1,740.0 | 1.9 | 2.9 | 4.4 | 7.9 | 9.6 |
| 3,800 | 46 | 1,748.0 | 2,052.0 | 1.6 | 2.5 | 3.7 | 6.7 | 8.2 |
| 4,800 | 50 | 2,400.0 | 2,400.0 | 1.3 | 2.1 | 3.2 | 5.7 | 7.0 |

註: 1) 所得水準 및 稅率은 國稅統計年報의 課稅標準階級 및 所得稅率을 적용하였음.

2) 학생 1인당 사부담 교육비는 사부담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포함되었음.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84.

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2)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참가

한편 산업화사회에서의 가정경제의 생산요소 분야의 또 다른 특징은 가구주외의 가족원의(주로 여성) 노동시장에의 참가를 들 수 있다.

여성취업의 확대는 산업화 과정을 밟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의 하나이다. 즉 그것은 도시화, 관료제화, 공업노동력의 증가 교육기회의 확대 및 개인주의의 사고 등 소위 산업화의 논리라고 불리는 일련의 변화와 더불어 대부분 산업사회의 공통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문조, 1987).

이러한 여성의 직업참여는 여권론적 입장에서는 유급노동에 대한 권리획득이라는 입장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가정경제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활동 행위 영역이 가정내에서 가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역할변화의 관점으로도 이해 될 수 있다. 즉 과거 전산업사회에서의 생산활동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때 여성의 생산활동 참여도 상당한 가치를 지녀왔으나 산업화로 인해 가정 내의 생산의 지속적 축소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약화시켰으며 가사노동의 시간절약으로 유희 노동력을 발생시켰다(박명희, 1983).

이에 따른 유희 가정노동력의 국민경제적 노동시장으로 편입은 산업화가 가져다 준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와 기계화는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여성의 노동력을 가정 밖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며 동시에 사회 진출에 따른 가사노동의 합리화의 필요성에서 산업화와 기계화가 한층 더 요구되는 상호관련성을 갖는다(이기영, 1981).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노동분야로 참가한 여성 노동자는 여성경제활동인구의 30%, 1987년에는 45% 정도이다. 이중 노동참여의 구조를 보면 1960년대 1차산업 종사자가 85.6% 2차산업 종사자가 4.9% 3차산업 종사자가 9.5%인데 반해 1987년에는 1차산업 종사자가 24.3% 2차산업 종사자가 29.4% 3차산업 종사자가 46.3%로 구조

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는 산업화가 가지는 특성인 핵가족화와 소자녀주의, 가사노동에 대한 불만, 시간절약형 가사용 상품 보급 및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따른 여성성취 의식의 확산과 취업여성 증가로 인한 성역할 태도변화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정경제적 관점에서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본다면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은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교육에의 투자 및 훈련을 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회노동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력이 사회노동력에서의 투입과정에 있어서 인간자본의 투자수익율과는 상반되게 고학력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에로의 투입이 지체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볼 수 있으나 남편으로부터의 타소득 효과가 워낙 강하게 작용하며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아직도 대부분 저임금생산직 위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고임을 얻을 수 있는 직종에 대한 고학력 여성의 진출이 막혀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김수곤, 1986).

Mincer(1962)의 이론에 의하면 남자나 미혼여성이 여가와 노동이라는 양자택일을 하는데 반하여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을 결정할 때는 여가와 노동에 가사까지를 합한 3자중의 택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시장노동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시장임금(Market wage) 가사노동에의 댓가를 가사임금(home wage)이라고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전통적 가정제일주의 가치관에 따른 가사의 중요성과 고학력 여성노동자에 대한 수요 및 취업기회부족으로 인한 노동 임금의 상대적 하락, 그리고 남편의 소득 효과로 인한 여가에서의 3자 선택시 가정에 비중을 두고 취업을 포기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과 일터가 분리된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일어난 선진산업국가들의 가정과 유사한 현상이나(조은, 1985)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가 진전될 수록 그 양상이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III. 소비분야의 특징

산업화에 따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하나 서비스 생산은 고도로 전문화된 기업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가계의 주요 경제행위는 가족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얻은 화폐소득으로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하나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입 소비하는 것으로 되었다.

산업 발달로 대량생산은 우리의 가정생활에 큰 변혁을 가져왔으나 이는 시장의 확대이다. 시장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기 전에는 그다지 중요한 구실을 하지 않았으나 산업화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이후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화폐경제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었으며 상업적인 가치가 중요하게 되고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시장의 크기로 측정되는 경제시장이 정부의 첫째 목표가 되었다(A. Toffler, 1981).

산업화가 이루어질수록 시장의 크기는 거대화 될 뿐 아니라 시장의 상품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져 무수한 상품의 홍수속에 떠 있는 가계는 자신과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점점 더 혼란을 느낄 뿐이다.

가계의 선택행동에 미치는 중요변수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다. 시장에 있어서 교환의 주인공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이지만 생산자인 기업은 거대한 시장을 자금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통치하므로써 소비자를 무력하게 만들어 놓았다(E. Scott. Maynes, 1976).

이러한 통치를 하게 한 것은 대량생산된 제품을 대량매체를 통한 광고에 의해 대량 유도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게된 산업화의 특성 덕분인 것이다(J.K. Galbraith, 1971).

어느 사회나 산업화가 진전되어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시대에 도달하면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비자보호운동이 싹트기 시작

한 시작한 것은 초기산업화시기로 생각되는 1960년대였으며 소비자보호운동이 가계의 관심을 끌고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업의 군림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1980년대 초에 선언적 의미로나마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바로 이러한 운동의 뒷받침과 어느정도 산업화 과정이 이루어 졌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였다.

산업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상품의 생산 및 시장의 유통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는 점점더 복잡한 문제가 야기 될 것이며 가계에 있어서는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주는 상품의 선택 문제가 가계소비활동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Becker(1965)를 중심으로한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경제와 사회속에서의 가계의 기능을 시장으로의 노동자제공과 시장에 의해 제공된 상품의 소비로 이해하고 가계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노동(사회노동) 비시장노동(가사노동) 그리고 소비재를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조합한다고 보았다. 즉 욕구충족의 수단인 재화와 서비스는 구입에 의해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을 통해 생산되기도 하므로 가계내의 모든 활동이 소비이기는 하나 이중 효용 가치를 가져오는 생산적 소비와 순수 소비를 구분하여 전통적 미시경제이론과 시각을 달리하였다.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론적 시각 및 가정경제적 시각에서 여러 학자(M.D. Costa 1973, V. Beechey 1987, 문숙재, 채옥희 가사노동, 1986)들은 가사노동을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가사노동은 산업화 이후에도 전산업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형태의 노동으로서 상품으로서 매매는 되지 않지만 가족원이 필요로한 사용가치의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이며 이 노동의 양도 사회적으로 매우 거대한 생산을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상품생산뿐 아니라 노동력을 재생산 하는 작업도 하나의 생산적인 일이라 규정하면서 그것은 사용가치를 생산할 뿐 아니라 잉여가치까지 가져오는 근원이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Beekey는 가족성원의 노동력을 매일 재생산 하는 것과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 하는일(자녀양육

및 교육)인 가사노동도 확실한 가치를 가진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margaret Coulson (1975)는 가사노동이 소비를 위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지 가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필요로한 노동이기는 하나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는 상품화 되지 않은 노동은 교환가치와 잉여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은 생산적인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화에서 가사노동의 생산적 가치는 그리 인정되고 있지는 못하며 가계소비활동에 있어서 가사노동의 효용가치가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가계소비활동은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산업화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 고도로 전문화된 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가정내에서 행해지던 생산활동은 점차 공장과 시장으로 이전되고 가족원들은 자본제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화폐소득에 의존하게 되며 가족원의 생산요소제공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증가로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이 용이해 지면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이다(이기영, 1987).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성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 가사노동의 상품대체가 새로운 가사양식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이기영, 1987,) 이는 소비자 보호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와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화에 따른 가계의 소비자적 특성이 나타난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

IV. 요약과 전망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가정경제의 특징을 생산요소제공분야와 소비분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으며 생산요소제공분야의 특징으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의 교육과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참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소비분야의 특징으로

는 시장과 소비자문제발생 그리고 가사노동의 상품 대체측면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우리사회는 산업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표인 G.N.P와 사회복지수준 및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보아 아직 후기산업사회에 도달 했다고 볼 수 없으나 이제까지의 경제발전 속도로 보아 가까운 시일내에 선진산업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르는 가정경제의 특징변화에 대하여 간략히 전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사회에서의 가계의 인적 자본 투자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가 선진화 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자체는 늘어날 것이나 이 투자의 가계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즉 사회가 산업화로 진행되면 경제발전의 목표는 복지수준 향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부분을 국가가 상당부분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의 교육투자를 과감히 증가시켜 교육투자의 사회적 수익 효과 및 개인적 수익효과를 더이상 가계부담에 의한 교육투자에 의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여성노동력의 사회노동참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의 사회노동참가는 가까운 장래에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선진 산업국가형으로 변환되면 더이상 값싼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구할 수 없으므로 노동력 수요의 측면에서 여성노동력 특히 기혼여성노동력까지도 필요로 할것이라는 가정과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절하 및 성역할에 대한 서구적 가치관의 빠른 수용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이라는 가정하에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여성노동자의 사회노동에로의 투입이 급속히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족가치관 및 가부장적 특성이 쉽게 변모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여성노동력의 사회노동에의 참여는 더욱 강화 될 것이나 중산층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사회노동에의 참여는 강화되지 못하고 반대로 가사노동에의 가치평가가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여성의 가정경제 기여도는 계층별로 양극

화 되어 저소득계층 가계의 여성은 가정밖의 사회노동에의 참여에 의한 생산요소제공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가정내의 가사노동에 의한 가계 서비스 약화되고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계층 가계의 여성은 가정내의 가사노동에의 가치가 강조되고 가계의 소비활동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한 가정생활의 질향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의 소비분야의 특성은 시장에서의 소비자 역할이 더욱 강화 되고 소비자 선택을 위한 소비자정보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이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는 시간절약 및 노동절약형 상품의 대체가 더욱 가속화 되며 여가상품 및 서비스상품에 대한 소비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화의 과정이 더욱 진전되어 서비스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후기산업사회가 되면 가계는 늘어남 여가를 이용해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는 가사노동을 통해 직접하려고 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서비스 요금을 절약하고 여가를 생산적으로 보내는 즉 제 3의 물결에서 이야기하는 교환부분의 경제가 축소되고 시장의 역할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나 우리사회의 산업화 과정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보다는 좀더 먼 미래의 전망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김문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직업 활동 전망, 아세아 여성연구 26, 1987, pp.35-44
- 2) 김수곤, 기술발전과 여성, 아세아연구, 25집, 1986
- 3) 문숙재, 채옥희, 가사노동, 1986, 신광출판사, pp.55-68, pp.9-19
- 4) 박명희, 산업화 사회에 있어서의 가정과 교육의 방향, 1983, 동국대 사대교육문제 연구소, 교육연구 제 2집 pp.29-118
- 5) 박세일, "우리나라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한국개발연구 4(가을호 1982) pp.94-124
- 6) 배종근, 교육투자의 적정치와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문교부 연구보고서 1976
- 7) 이기영, 국민경제차원에서 본 가사노동의 의의

- 와 전개, 고대사범대학 논문집, 제 6집, 1981, pp. 210-222
- 8) 이기영,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7, pp. 39-40
 - 9) 앨빈토플러(A. Toffler), 제 3의 물결, 유제천 (역), 주우, 1981
 - 10) 조은, 중산층여성과 문화지체,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연구 보고서 1985, pp. 105-160
 - 1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의 소득결정력과 소득분 배, 1985 p 37
 - 12) E. Scott. Maynes, Decision-Making for consumers,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ew-york, 1971) pp. 263-269
 - 13) Elmer Robles Ortiz, Family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development. The world community in post-industrial society. The world academic conference of the social olympiad 88. unpublished.
 - 14) Gary Becker, J. Mincer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A Study of labor supply", NBER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Univ. press, 1962, pp. 63-91
 - 15) G.s. Beckeer "A theory of time allocation", The economic Journal, 75 (sept) k1975: pp. 493 -517
 - 16) g.S. Becker & Barvy R. Chiswict, "The economics of education: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earn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6, 1966. pp. 258-369.
 - 17) Jacob Mincer "The distribution of labor Income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8. 1970. 1-26
 - 18) John. Kenneth Galbrath, the New Industiall State, 2nd ed, rev. (New-York, 1971) pp. 1-31
 - 19) M.D. costa "Die Frauen und die umsturz der Gesellschaft" die Macht der Frauen und der umsturz der Gesellschart, berlin.
 - 20) v. Beechey, "Women and Production", feminism and Materialism, A kuhn & A.M. wolpe (eds), Londen: 1987.

산업화와 가족생활

— 가족연구의 실천적 지평을 위한 일고찰 —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식생활학과

朴 惠 仁

I. 머리말

가족은 우리에게 매우 친밀한 환경이므로 가족에 대해 객관적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족에 대해 맹목적인 가족우선주의를 갖고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가족은 역사적 변천과 사회적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제도인 이상 가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필요하며 오히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산업화의 진전과 상관없이 가족중심의 가치가 사회의 중심가치로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평가되는 한국가족의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지향적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특히 전반적인 생활양식의 급진적 재구성이 필요한 격변기의 한국가족이 현재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가족연구 입장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西歐의 산업화와 가족

인간은 가능한 한 점진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보수성을 갖고 있으나 생산체제상 근원적 혁명이 일어날 때 이러한 점진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즉 수렵채취사회의 식량획득 경제에서 농경사회의 식량생산 경제체제로 변한 농업혁명기에 그러했고, 인간의 노동력 위주의 생산체제에서 기술과 분업 위주의 생산체제로 이행한 공업혁명기, 이른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변화기는 인류의 50만년

역사에서도 드문 격변기로서 생활양식의 급진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대이다(W.J. Goode, 1971). 대체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M. Young & P. Willmott, 1973).

1. 농경사회

첫단계는 생산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농경사회의 생산양식이다. 이 단계는 개인이 가족구성원으로 사회적 신분을 계승하고 경제적 자원을 상속받는 귀속적 신분사회이다. 가족은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생존에 절대적 의미를 갖고 결혼은 가문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노동력제공과 자녀출산, 가계계승, 부모모양이 중요시된다. 가족질서는 가부장의 위계서열적 권위를 통해 유지된다.

2. 초기산업사회

두번째 단계는 초기산업사회로서 사회와 가정의 엄격한 분리가 특징이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 및 산업화는 '근대화' 또는 '진보'라는 이름아래 기술개발과 경제생산에 주력하였는데, 경제적 생산이 사회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가정은 소비의 단위로, 그리고 휴식과 정서적 안정의 장소로 변했다. 직업선택에 따라 계층간의 이동이 크게 가능해지고 공간적 이동도 불가피해진 가운데 가족형태는 적은 수의 자녀와 부부로 이루어진 핵가족으로 변하였다. 가족 및 친족관계도 부자중심의 수직적 관계보다 부부중심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고, 이때 남편은 유일한 경제소득자이며 아내의 가정관리를 책임진다.

T. Parsons를 위시한 기능주의자들은 특히 생산활동영역과 소비하는 사적공간으로서의 가정이 엄격하게 분리됨에 따라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성별로 분담함으로써 가족기능이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았다. 남편만이 직업에 종사하는 성별분업은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혼관계 속에서 경쟁을 최소화시키므로 가족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기능까지 한다고 하였다(1964).

3. 후기산업사회

세번째 단계는 후기산업사회로서 핵가족화라는 가족형태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가치관과 인성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단계이다. 서양의 경우 산업화의 이 두 과정은 4~5세기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이행과정이었으나 최근 20여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어가고 있다.

이 방향으로의 변화는 주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수많은 개인적 불행과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앞 단계의 초기산업사회가 산업화에 대응한 외형적 적응이라면 후기산업사회단계는 좀더 본질적 차원에서의 변화로서 가족의 이념과 역할, 가족관계의 변화까지 수반한다. 그리하여 이 단계에서는 이제까지의 기능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핵가족이 산업사회와 근본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¹⁾.

(1) 인간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감정적 유대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핵가족은 이 둘을 엄격히 분리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가족 내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것이 기대되는 가족구성원 특히 그중에서도 부부가, 가정과 사회라는 서로 다른 경험세계에 살게 되었다는 점이다. 남녀가 가정과 사회로 갈라져 있는 한 규범적이고 지배종속적 관계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3) 핵가족의 고립성이다. 지역공동체, 친족공동체와의 단절을 뜻한다.

1) Moore (1969), Lasch (1980), Skolnick (1980), Zaretsky (1980) 등은 핵가족을 생산성에 집착한 산업화 과정의 산물로 보고 그런 제도가 안고 있는 비인간성과 장기적 사회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논하였다.

(4) 가정주부, 노인, 아동들이 생산에서 제외되므로 일어나는 소외문제이다. 이들은 가정에 고립된 채 집단주의적 가치를 내면화시킬 것을 강요당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5) 핵가족만이 가장 이상적인 가족형태라고 하는 핵가족이데올로기는 별거, 이혼, 미혼모가족 등 소위 표준적 핵가족 형태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외와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6) 부부애정중심의 핵가족이 안고 있는 주관주의와 보수주의적 성격이 문제되고 있다. 개인 감정의 내면세계와 경제생산 위주의 외부세계가 서로 분리된 상황에서는 가족원에게 유일한 자기 공간은 가정뿐이다. 그러나 이미 친밀성의 문제에서 논의했듯이 부부의 애정이란 실재이기보다는 환상적인 기대이며 오히려 개인생활과 정치영역 간의 상관성을 무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통합이 극히 어렵게 되었으며, 역사의 과정은 공동체적 감정, 가족적 책임의식, 개인관계 등과 무관한 채 일터와 사회원리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다(Zaretsky, 1976).

현재 진행 중인 이 서구의 후기산업사회 단계는 가족내적으로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가족관계의 민주화를 뜻하고, 가족외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상호작용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주목될 점은 서구에서 1970년대를 기점으로 가족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으며²⁾ 그것은 흥미롭게도 소위 '행복한 핵가족'에서 자라난 세대가 앞장서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은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느낀 개개인이 일으킨 하나의 생활양식의 혁명으로 볼 수 있다.

2) 동거관계(non-marital cohabitation), 자발적인 무자녀가족(voluntary childlessness), 별거가족(sabbatical year for marriage : 합의 아래 일정기간 별거), 多世帶가족과 공동체가족(multi-adult household and commune), 片父母가족(single parenthood), 二重핵가족과 자녀공동양육권(binuclear family and joint custody : 이혼후 부부·자녀관계 지속), 개방결혼과 개방가족(open marriage and open family)

이는 60년대에 일어난 갖가지 사회운동과 남녀평등권운동,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남녀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된 사회여건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기술문명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었던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면서 비롯되었다. 산업사회가 가져온 비인간화의 문제를 깨닫게 된 이후 더욱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추구하는 원리는 첫째, 가족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집단의 복지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는 민주적 관계를 기초로 한다. 둘째, 가정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제를 받지 않도록 사회와 가정 간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한다.

그런데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민주적가족을 만들어가려는 이러한 노력이 1970년대를 통하여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서구 특유의 개인주의의 성향과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³⁾. 사적영역에서의 조용한 움직임이 단시일내에 전체적인 변화를 드러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현재 서구사회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원자화된 개인으로 흩어지든가, 전통적 가족제도에 다시 매달리려는 성향을 매우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다⁴⁾.

III. 韓國의 산업화와 가족

제3세계 중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 산업화 단계에 들어선 한국사회는 현재 농경적, 초기

3) 미국은 1900년대를 전후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며 아동, 노인 등 가족의 부양의무를 정부의 교육·보건 서비스로 대체하여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의존적 욕구 충족의 1차책임자로 남아 모성과 애타주의를 강조하고 남성에게 종속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E. Zaretsky, "성변동과 사회변동" 강연 초록, 여성개발원소식 47호, 1988.)

4) "후기산업시대 세계공동체"를 주제로 한 서울울림픽 국제학술회의 가족분과에서 조지 드·보스교수도 동양의 유교적 가족 이른바 전통적 가족의 미덕을 강조한 바 있다(1988).

산업사회적,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적 양상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산업화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점과 서구의 것을 산업화의 모델로 삼았다는 점이 한국 산업화과정의 특성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삶의 질은 무시된 채 경제계획의 추진에 따른 경제성장 일변도의 산업화는, 가정을 산업역군을 생산해내는 장소로 전락시켰고, 산업화의 급속한 전개는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즉 성취지향적 개인주의, 평등주의와 합리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소위 근대적 구조원리가 사회영역에 따라 달리 실현되었다. 특히 가족생활을 포함한 사적 영역은 근대적 가치와 무관한 전통적인 혈연주의, 서열주의, 온정주의가 지배하여 과도기적 갈등을 심화시켜왔다(박영신, 1983).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구조의 변화와 직결된 부분은 급격히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나 인간적 상호작용과 합의가 요구되는 영역의 변화는 매우 다르다. 실제로 현대 한국 가족관계상의 변화의 관건은 바로 이 차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형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용상의 변화로서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시가중심원리와 친정중심원리, 부모중심원리와 부부중심원리의 대립 등으로 나타나는 제도적 관계와 애정적 관계간에 벌어지는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점이다(조혜정, 1988).

1. 결혼관·결혼만족도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 특징 역시 서구지향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전통적 태도와 마찰하고 있다(이동원, 1981).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결혼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태도는 약하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과정에서부터 부부중심가족의 전제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더구나 이때 남녀간의 태도 차이가 주목된다.

또한 결혼만족도를 통해서 보면 부부간의 정서적 기대보다는 경제적 또는 자녀들의 아버지로서의 기대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내면적 구조는 여전히 혈연중심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2. 의사소통

부부들의 의사소통관계를 보면 가족 및 혈연중심적 대화이며 특히 자녀문제가 주된 내용이다. 부인들의 관계망은 친척 및 친구들과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남편들은 직장생활에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여가활동도 친구들과 함께 한다(이동원, 1984). 정서적 관계를 보면 내면적 감정을 부부간에보다 친구들과 더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남녀차별 문화의 전통에 기인한다. 오늘날도 남자는 가족, 학교, 사회에서 달리 취급되며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대등한 대화의 기회가 없는 까닭에 결혼 후 동료의식을 갖는 것 역시 쉽지 않다.

3. 역할분담 · 의사결정과정

부부간의 역할분담과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남편지배적인 유형은 대체로 감소하고 부부 상호간의 평등한 권리를 갖는 일치형가족이 증가하고 있다(이동원, 1983). 또한 가사결정에서도 남편주도형이 줄어들고 상호의존형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의 결정권을 나누어 갖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관계인가는 의문시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든지 되돌려 받을 권리를 지닌 채 양보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보에 의하든 포기에 의하든 힘의 균형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자체가 제도화될 수 있다.

4. 가족의 불안정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혼율이 다른 산업화과정의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긴 하나 80년대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족을 유기하는 현상도 저소득층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밖에 남편의 직장이동에 따른 임시 별거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옮겨가지 못하는 것은 자녀교육이 주요인이며 이것은 한국적 상황에서의 특징이다. 산업사회의 이동에 기능적인 핵가족 형태를 갖추었어도 경쟁사회라는 외적요인이 가족의 역기능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심리적 해체의 측면인 부부간의 폭력도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체요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부부의적 관계 등의 가족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제 등을 들 수 있다. 일부중사, 조강지처에 대한 관념은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항목별로 살펴볼 때 가족과 관련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강한 가족주의와 남녀차별적 전통이다.

첫째, 가족이 모든 사회생활의 근원이라는 가족중심적 가치는 농경사회의 산물이지만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강화되어, 부계혈연중심의 가족이 사회생활의 절대적 단위로 뿌리를 굳혀왔다. 더구나 일제식민지시대와 6·25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가족은 개인의 삶의 최후 보루가 되었다. 그리하여 혈연가족의 기능과 의미는 더욱 절대화되었으며 가족에 관한 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 반응을 불러 일으켜왔고 그런 면에서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안정의 토대이자 부수성의 온상이 되어왔다.

둘째, 극단적인 남성우대의 관습과 다른 어느 관계보다 우선시 되어온 모자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남녀차별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바뀔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국의 산업화의 발달이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하여 식민주국주의적 팽창의 불가피한 산물로서 극단적 서구지향성을 초래했다는 제3세계적 특징이 역시 한국사회에도 해당된다(한상진, 1988). 즉 서구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현재 서구에서는 오히려 극복하고자 하는 구시대의 잔재를 직수입하여 모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낭만적 부부애의 환상과 신사도와 의존적 여성상, 극단적 개체주의가 그 예이다. 이러한 맹종의 다른 편에는 서구화를 무조건 배척하는 입장이 있게 되며 이 신보수주의자들은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불안정성과 노인층의 고독한 생활 등을 지적하며 전통적 양식만을 고집하기에 이른다. 산업화와 서구화를 분석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고는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토론을 어렵

게 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IV. 가족의 민주화를 위한 모색

한국가족의 이와같은 갈등상황은 여성의 취업여부와 계층에 따라 그 양상이 얼마간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 내의 역할분담, 권력관계, 가족원 간의 적응양식과 가족이 외부압력에 대응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조혜정, 1988).

1. 비취업여성의 가족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핵가족화가 현저한 만큼 대다수의 중산층 가족에서는 Parsons의 구분과 일치하는 분담 형태가 주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지주인 남편과 그에 의존하는 아내가 그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화의 역사가 짧은 한국가족의 경우, 고립된 핵가족의 전형을 이미 상당기간 이루어왔던 서구사회와 달리 아직은 주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폭이 넓은 편이다. 계나 부동산 매매와 같은 경제적 역할, 자녀교육에의 기여, 제사 및 친척관계, 적극적 내조 또는 자녀의 결혼성사 등의 일이 있다.

여성들은 가정주부의 삶이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삶이라는 것을 절대적 진리처럼 배워왔기 때문에, 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아실현의 과제를 남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 내 역할수행을 철저히 하려는 주부일수록 남편과 자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존적인 자녀, 의존적인 남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낭만적 사랑의 부부상에 매달리므로써 나약하고 의존적인 여성상을 새로이 심게 될 수도 있다. 이 현상은 남편의 역할과중과 소시민화를 강요하여 더욱 문제가 된다.

그리고 비취업주부의 삶이 갖는 또 다른 사회적 비중은 (i) 그것이 성에 따른 역할분담을 구조적으로 지속시킨다는 점과 (ii) 과잉소비, 과시성향을 증가시키는 점 그리고 (iii) 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는 점이다. 가정일을 전담하는 주부가 여성의 지배적인 삶의 형태인 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업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여유있는 층의 주부의 삶은, 여성들에게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 듯한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자녀교육에 주부가 전담할 때 그 자녀는 계층 상승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웠던 당시 지역사회의 봉사로서 여가를 선용하는 주부가 많았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가를 보내는데 있어서 개인적 만족이나 자녀들에게 치중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부재는 한국의 특수한 현상으로 파악되며 그 원인은 한국문화의 극단적인 가족·친족중심주의에서 찾아진다(Tinker, 1980).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비취업주부들은 가사를 포함하여 자녀와 환자돌보기 등 서구사회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많은 양의 사회복지분야 일을 아무런 댓가없이 떠맡아 온 것이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회적 충격을 개인이 가족 차원에서 감당해 온 것이다.

동시에 주부는 불안정한 경제체제를 안정시키는 산업예비군적인 집단으로 있으면서 가정여건이 나빠지면 지금까지 고수하던 가치와 상관없이 비숙련·저임금의 산업노동자로 직업전선에 나서야 했다.

인간적 유대보다 상품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가정주부의 역할과 위치는 취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진행의 방향은 고립되어 있는 주부들의 노력으로는 바꾸어놓기 어렵다. 그것은 주부들이 자신의 자녀와 남편의 삶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통찰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인데 이는 곧 주부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폭을 넓히는 문제와 연관된다. 구체적으로 주부의 자아성찰과 정치·사회적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나아가는 것이 과제이다.

2. 취업여성의 가족

취업주부는 (i)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하는 경우, (ii) 가정의 경제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그리고 (iii) 자아실현의 가치를 부여하고 일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이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따라 가족성원의 협조와 여성 자신의 행동이 달라진다.

(1) 농촌가족·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족

노동계층의 여성들은 물론 농촌가족의 여성들은 (최재석, 1988)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들은 비취업주부를 선망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경제력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조형, 1986) 자신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갖고 남편과 대등한 관계일 수 있는 여건에 있으면서도 근본적 차원에서 이 조건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일을 임시적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대등한 부부관계의 욕구가 없다. 반면에 자각 지식이 있는 남편들은 가정의 지위를 남자로서의 우월감으로 견지하고 있다. 노동계층여성의 계급적 의식과 여성으로서의 의식은 미묘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들에게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인간평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가사와 육아의 경험을 부모가 공유하여 가부장적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들이 일한 만큼의 분배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이, 계층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2) 고임금 취업주부의 가족

대부분의 우리나라 취업주부들은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사회적 자원을 공평한 권력배분을 위한 협상에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조혜정, 1981). 그 직접적 요인은 (i) 남존여비이데올로기의 존속, (ii) 이중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 (iii) 남성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식, 그리고 (iv) 매사를 여성적 인내와 소극성으로 처리하려는 등의 전통적 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취업의 당위성이 아직 제대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배려는 더욱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업여성들이 겪는 고충은 현재로서는 여성 자신의 남다른 노력과 그 가족의 양해나 협조의 수준에서 해결이 모색되고 있을 뿐이다. 취업주부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의 합리화와 평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전통적 부덕을 고수하면서 직장활동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한 역할갈등과 역할부담

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태도는 앞으로의 여성취업의 진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업여성, 수퍼우먼형이거나 직장을 소홀히하는 여성상으로 정착될 때 여성취업의 개선은 그만큼 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여성들은 그들이 진보적인 직장활동을 수행해가는 만큼 가정도 진보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족원들은 부인이나 어머니의 취업이라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고, 특히 육아와 가사노동을 가족원 서로가 합리적으로 나누어가는 훈련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족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여성이 취업을 하든 안하든 마찬가지이며, 결국 가족의 기본적 생계보장과 인권의 보장이다. 구체적으로 가족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취업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고용기회를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양육과 교육에 대하여 국가는 책임있는 지원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V. 가족연구의 문제점과 제언

산업화과정에서 노출되는 현재 한국가족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이것은 실천학문이라는 가정학의 본분을 회복하고자 가족연구의 변신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이데올로기와 가족연구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에 갇혀서 반쪽 이론에 안주하는 이론적 보수성과 서구이론을 맹목적으로 도입하여 한국현실을 그 이론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 온 학문적 비주체성을 극복해야 한다. 서구일변도의 산업화이론을 적용시켰을 때 이것은 종속적 질서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지닌 까닭에 민중적 이해를 대변해오지 못했다는 비판이다(김진균, 1983). 서구의 구조기능주의, 근대화이론의 적용이 서구자본주의의 편입에 기여해온 데 대한 반성에 기인한다(이효재, 1988). 체제유지적 폐쇄성을 벗어나 비판가족이론,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 이론에

대한 개방을 꾀하여 각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가족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자는 것이다.

2. 가족연구 방법론의 다양화

사회통계적 방법이 지배적인 현재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가족연구의 攻過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자. 이것은 사회학계에서 비등하고 있는 실증적 방법에 대한 비판, 반성과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것이다. 통계란 수단일 뿐이다. 수단인 만큼 충분히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적지 않은 통계분석방법은 서구이론의 틀에서 이루어진 까닭에 서구가족과는 이질적인 한국가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산업화의 진전 속도가 판이한 한국가족에, 서구가족연구 결과를 접합시켰을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만다.

척도를 사용할 때 비교문화적 고찰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視角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 대한 역사·사회맥락적 통찰에서 문제발견을 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했을 때 학문의 국제화가 의미있는 것이 된다. 모든 연구조사분석은 연구결과를 통해 설득력 있는 실천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이론과 실증과 실천적 함축을 결합시킨 가정학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활세계분석법, 사례연구, 참여관찰 등 직관적이고 질적인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이 가족연구에서 시도, 수용되어야 하고 오히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이해와 대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대상의 확대와 가족학의 실천성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는 이제까지 안이하게 도시중산층 위주로 치우쳤던 가족연구의 대상을 농촌가족이나 저소득층가족, 문제가족 등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참여관찰과 집중적인 현지조사(intensive field work)를 통하여 보다 밀도있는 자료수집이 가능해지고 연구의 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학이 부르조아학문이라는 이제

까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난날 제도적·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⁵⁾ 가정학의 위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가정학은 가족의 전통성을 고수하는 시대착오적 학문으로, 또 여성만이 독점하는 분야로, 그리하여 취직에도 불리한 분야로, 또 뭔가 고리타분하게 통념화된 오해들을 받으며 변신하고 있다. 가정학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가정학의 변신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도 한국가족학은 탈바꿈을 해야 한다. 현실과 직면하는 실천학문으로서의 가족연구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4.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교류증대

분과학문간의 활발한 교류와 문제의식의 공유를 위한 노력은 학문의 단절을 넘어서게 해준다. 연구영역을 계열화·전문화하고 이를 다시 한국가족전체의 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이론화로 종합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연구의 학술적 도입을 긴밀하게 하여 서로에게 유용한 공동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체계이론을 가정학 특히 가정관리학분야에서 가족분석의 유용한 틀로 삼았다. 그러나 그 이론이 가족연구에 적용되었을 때 가족연구자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것은 바로 가족연구자들이 가족을 둘러싼 환경, 즉 사회, 국가에 대한 인식과 통찰이 미흡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근접환경, 광역환경에 대한 통찰의 미숙은 실제로 미시적인 가족 내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치 가족이 국적 없는 진공상태에 있는 양 기술하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다. 그런 점에서 제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없이 종합학문으로서의 가정학이 설 자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인접학문에 대한 수준높은 수용은 가족생활조사와 과학적 이론화를 위한 연구자들의 진지한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다.

5) 가정학은 광복 이후 생활의 합리화에 기여했고, 또한 여성인력 양성에 기여했다. 물론 그 당시의 先導가 무분별한 서구화의 대열에 앞장선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는, 별도로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다.

5. 가정학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집단적 노력

가정학은 가치지향을 제시하는 실천학문이므로 가족의 현실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다.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가족법 개정등의 가족·사회민주화 대열에 솔선해야 하며 문제가족의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 가족생활 조화를 위한 성인교육프로그램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고 분단가족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학회 차원의 집단적 결속으로 꾀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 현안과제로서 남녀의 가정과 공통이수문제는 우리의 미래가족을 위해 보다 실천력 있는 합의절차를 거치고 여론을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70~8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중압감에 시달리며 학문적 수단으로 대응하지 못한 무기력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일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진균(1983), 『비판과 변동의 사회학』, 한울.
 김진균편(1984), 『현대자본주의의 이론적 인식』, 『역사와 사회』 2.
 박영신(1978),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일지사.
 박영신(1983), 「한국사회발전론 서설」,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변형윤 외(1985),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편(1983),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이동원(1981), 「도시가족에 관한 연구: 결혼에 대한 태도 비교: 1958~1980」, 『논총』 39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동원(1983), 「도시가족에 관한 연구(II): 주부의 역할 및 자녀관의 변화: 1958~1980」, 『논총』 42호 별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I): 시가 및 친가와와 관계를 중심으로」, 『논총』 44호 별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효재(1983),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이효재편(1988),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
 조은(1985), 「가사와 경제활동에 관한 태도와 실태」, 『중산층 여성과 문화지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연구보고서.
 조형(1986), 「인간해방의 구조」, 『열린사회, 자율적 여성』, 『또 하나의 문화』 2, 평민사.
 조혜정(1981), 「부부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본 취업/비취업 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15집.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최재석(1988), 『한국농촌사회 변동연구』, 일지사.
 학술단체연합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1988),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한상진(1988),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문학과 지성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Enrenreich, B. (1983), *The Hearts of Men: American Dreams and Flight from Commitment*, New York: Anchor Books.
 Goode, W.J. (1970),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The Free Press.
 Lasch, C. (1980), "The Family as a Haven in a Heartless World," *Family in Transition*, ed. Skolnick and Skolnick,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Moore, B (1969), "Thought on the Future of the Family," *The Family and the Change*, ed. T.N. Edwards, New York: The Free Press.
 Parsons, T. (1964),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Skolnick, A. and Skolnick, J. (1980), *Family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Young, M. and Willmott, P. (1973), *The Symmetrical Family*, New York: Pantheon.
 Zaretsky, E. (1976), *Capitalism, the Family and Personal Life*, New York: Harper and Row.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김정희 역, 1983, 한마당).